딱 맞는 풀이집

윤리와 사상

I 동양 윤리 사상

01 도덕적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0쪽

01 ○ 02 × 03 × 04 ㉠ 05 ㉡
06 도덕과 예의 07 본연지성 08 역성혁명
09 수오지심 10 예를 11 양지 12 대동 사회
13 왕도 정치 14 예치

02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03 주희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0~14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① 09 ④ 10 ②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③ 16 ⑤

서답형 문제

17 모범 답안 ㉠: 남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 ㉣: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18 모범 답안 순자는 예를 바탕으로 상하, 존비, 친소, 귀천 등을 구별하되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치를 주장하였다. 19 모범 답안 주희는 선후를 따지자면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앞선다고 보았고, 경중을 따지자면 도덕적 실천이 도덕적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01 공자의 윤리 사상 답 ④

대화 속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마음과 같이 여기는 서(恕)의 덕목을 제시하였고, 지나친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자는 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 타인과 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ㄹ. 공자는 인의 실천을 위해 부모에 대한 효도인 효(孝)와 형제간 우애인 제(悌)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인 충(忠), 이웃 간 믿음인 신(信) 등의 덕목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02 맹자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업이 필요하므로 군주가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맹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단을 선천적으로 지닌다. ②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저버리고 군주답지 못하다면 군주를 교체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사양지심이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이 지(智)의 단서라고 주장하였다. ④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아끼며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추구하였다.

03 공자의 서(恕) 답 ④

공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마음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서(恕)의 덕목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효(孝)에 대한 설명이다. ② 충(忠)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제(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정명(正名)에 대한 설명이다.

04 맹자의 인의(仁義)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사단인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인의예지라는 사덕의 단서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③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공자가 제시한 인(仁)에 의(義)를 덧붙여 인의를 중시하였다. ④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다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맹자에 따르면 군주가 백성들의 항산(恒産)을 보장해 주어야 백성들이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05 맹자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고 사단을 확충하여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맹자는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인 호연지기를 기름으로써 이상적 인간인 대장부(大丈夫)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므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ㄷ. 맹자에 따르면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은 시비지심으로, 지(智)의 실마리이다.

자료 분석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사람이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는 욕심을 줄이고 인의예지의 실마리인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구방심(求放心)을 중시하였다.

06 공자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사욕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공자는 돈을 가져가려는 욕심을 극복하고 지갑과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A에게 조언할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공자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07 순자의 윤리 사상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예(禮)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통해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에 따르면 예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바로잡기 ㄱ. 순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똑같이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ㄹ.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 혼란이 발생하므로 제도적 규범인 예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08 순자의 성악설과 예(禮)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예(禮)에 따라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기는 등 예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택지 분석

- 선천적인 마음인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선천적인 선한 마음인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므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단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하늘이 부여한 예를 통해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 순자는 예를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든 사회 규범 및 도덕으로 보았다.

09 순자의 예치(禮治) 답 ④

㉠에 들어갈 말은 '성악', ㉡에 들어갈 말은 '예', ㉢에 들어갈 말은 '예치'이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질서 있는 생활을 규제하는 사회 규범과 도덕인 예를 최고의 가치로 보았다. 순자는 예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예치를 중시하였으며, 진정한 예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에 들어갈 말은 '의'가 아닌 '예'이다.

10 순자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모든 사람이 예를 배우고 익혀야 하며, 예를 기준으로 욕구를 조절해 본성을 교화시킴으로써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에 따르면 예에 따라 상하(上下), 존비(尊卑), 친소(親疏), 귀천(貴賤) 등을 구별하되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② 순자는 백성이 스스로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순자는 예를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자료 분석

배고프면 먹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배가 고파도 어른보다 먼저 먹지 않고 힘들어도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인간이 선해지는 것은 인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서, 맹자가 성(性)과 위(僞)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위는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순자는 맹자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도덕성은 사실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순자는 성악설을 통해 도덕적 삶과 사회 질서 회복의 근거를 인간의 도덕적 마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서 찾고자 하였다.

11 주희의 윤리 사상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이(理)가 우주와 인간, 사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원리이며, 모든 사물이 하나의 이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② 주희는 사물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주희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구를 멀리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을 강조하였다. ④ 주희는 본연지성을 이 자체로서의 순선한 본성으로 보았고, 기질지성을 이와 기가 혼재된 것으로 보았다. ⑤ 주희에 따르면 순서로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앞서고, 중요도로는 도덕적 실천이 도덕적 지식보다 중요하다.

12 왕수인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앎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곧 치지라고 보았다. 왕수인에 따르면 누구나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근거로 순수한 본래성을 유지한다면 이론적 탐구 없이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

바로잡기 ㄴ. 왕수인은 마음과 이치의 구별은 있을 수 없고,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ㄷ. 왕수인은 인식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분리될 수 없고 본래부터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13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답 ①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무관하게 사물에 이치가 있다고 본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고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왕수인은 주희에게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② A: 성(性)과 마음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B
③ B: 양지(良知)는 선천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 왕수인은 양지가 선천적인 앎이라고 보았다.
④ B: 격물(格物)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A
⑤ B: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은 본래부터 하나라는 점을 간과한다. → A

14 주희와 왕수인의 수양론 답 ⑤

주희는 지가 행에 앞서고 행이 지보다 중요하지만 지와 행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그 둘을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지행병진(知行竝進)의 관계로 보았다. 왕수인은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근거로 순수한 본래성을 유지하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왕수인은 양지(良知)가 수양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왕수인은 양지가 획득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앎이라고 보았다.
-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마음을 잘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15 주희와 왕수인의 윤리 사상 답 ③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선후(先後)를 따지자면 지(知)가 행(行)에 앞선다고 보았다[先知後行(선지후행)]. 또한 주희는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앎인 양지(良知)를 중시하였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 주희와 왕수인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욕심을 제거하는 수양을 강조하였다.

16 주희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 답 ⑤

주희는 사람과 사물이 형성될 때 이(理)를 부여받은 뒤에 본성이 생기고 기(氣)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가 생긴다고 보았다. 왕수인은 모든 사람이 양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주희와 왕수인은 각자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이 달랐지만 모두 격물치지를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ㄱ. 주희는 도덕적 실천이 경전 공부를 통한 앎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17 맹자의 사단

〔주요 키워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채점 기준	배점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의미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중 일부만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의미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 순자의 예치 사상

〔주요 키워드〕 구별, 능력, 사회적 지위

채점 기준	배점
순자가 제시한 국가 통치 방식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순자가 제시한 국가 통치 방식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순자가 제시한 국가 통치 방식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9 주희의 성리학

〔주요 키워드〕 도덕적 지식, 도덕적 실천

채점 기준	배점
주희가 주장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의 관계를 선후와 경중의 측면에서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주희가 주장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의 관계를 선후와 경중의 측면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주희가 주장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의 관계를 선후와 경중의 측면에서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1 공자와 맹자의 입장 답 ③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와 맹자 모두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도덕과 예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를 중시하였다.

선택지 분석

ㄱ. A: 모든 사람은 사단(四端)을 가지고 있다. → C

ㄹ. C: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02 순자와 맹자의 입장 답 ④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성인(聖人)이 인위적으로 만든 예(禮)를 배우고 익혀 지속적으로 수양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고,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양하여 이상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보았지만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므로 본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03 왕수인과 주희의 윤리 사상 답 ④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므로 마음과 이치를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희는 본연지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 자체로서의 순선한 본성이므로 항상 선하다고 보았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혼재되어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모든 사물 각각에 이치가 있는가?
→ (아니요 / 예) 주희는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다고 보았고, 왕수인은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

ㄷ. B: 지(知)와 행(行)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 둘을 합일해야 하는가?
→ 왕수인은 지와 행은 본래부터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04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답 ⑤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에 비해 왕수인은 타고난 앎인 양지를 강조하는 정도(X축)와 마음 밖에 이치가 없음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높고, 도덕적 실천을 위해 지식을 강조하는 정도(Z축)는 낮다.

02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8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성인 08 좌망 09 도 10 풍류도 11 허정 12 덕
13 무하유지향

01 노자는 인(仁)과 의(義) 같은 인위적인 사회 질서나 제도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03 장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 장자는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8~20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②

서답형 문제

09 (1) 소국과민 (2) 모범 답안 노자는 통치자가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국가를 다스리기보다는 무위지치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1) 장자 (2) 모범 답안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상대적이며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01 노자의 입장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道)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인 무위지치(無爲之治)를 강조하였다.

선택지 분석

-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 노자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이 상대적 가치를 지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법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 노자는 인위적인 다스림 없이 무위(無爲)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02 노자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겸손함, 검소함, 소박함 등의 덕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노자는 마치 물과 같이 겸허히 낮은 곳에 머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② 노자는 예법과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③ 노자는 인간의 언어로 도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④ 노자는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노자는 도(道)에 따르며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03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답 ④

제시된 내용에서 설명하는 사회는 노자가 제시한 소국과민이다. 노자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살며 인위적인 다스림 없이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이 실현되는 소박한 사회인 소국과민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이다. ② 법가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이다. ③ 순자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이다. ⑤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법률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분석

국토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비록 유용한 도구가 있더라도 쓰지 않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 삶을 아끼고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도록 한다.

→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지배자가 인위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정치와 전쟁, 법령을 비판하였다. 노자에 따르면 전쟁으로 백성들은 더 가난하고 혼란해지며, 많은 법령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겨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04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답 ③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이분법적 가치 체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만물에 대한 분별적 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작위(作爲)하지 않는 무위자연의 삶을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① 노자는 허정(虛靜)의 실천을 통해 인위적인 욕망을 적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도덕규범과 같은 인위적 질서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② 노자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중시하였고, 그러한 삶은 인위적인 예법이 아닌 자연의 도에 따름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맹자의 입장이다. ⑤ 노자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05 장자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대상 세계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물(齊物)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심재(心齋)의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고,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소요유(逍遙遊)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예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부정하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보충 ✪ 심화 장자의 무용지용(無用之用)

장자는 꼬불꼬불하게 자란 가죽나무 이야기를 통해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을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꼬불꼬불하게 자란 가죽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여기고 목재로 쓰지 않는데, 이 쓸모없음은 사회의 가치 기준이다. 하지만 장자는 그 가죽나무를 무하유지향의 들판에 심어 놓으면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좋은 쓸모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죽나무의 입장에서는 베이지 않고 자신이 타고난 본성을 다 누리게 되니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06 장자의 윤리 사상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자는 자신의 성공 기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다른 삶의 방식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A의 태도에 대해 옳지 않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⑤ 장자는 어느 한 가지 기준만이 옳다고 보는 분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③ 장자는 도덕적 규범과 같은 인위적인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세속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7 장자의 도가 사상

답 ①

갑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분별을 잊음으로써 소요유(逍遙遊)에 이를 수 있으며, 소요유에 이른 사람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았다. 장자는 분별적 인식 체계를 벗어난 성인(聖人), 지인(至人), 신인(神人), 진인(眞人), 천인(天人)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았다. 또한 자연의 도에 따라 살며 정신적 자유에 도달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ㄷ. 장자는 시비(是非), 귀천(貴賤), 미추(美醜) 등에 대한 분별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ㄹ. 맹자의 입장이다.

08 한국 도교의 전개 과정

답 ②

한반도에는 삼국 시대 이후에 오두미교 등의 교단 도교가 전래되면서 도가 사상이 확대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의 사유가 당대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신선이 되기 위한 도교 양생술이 유행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도교의 권선서가 민간에 널리 유통되기도 하였고, 민간 도교의 의례와 수행은 한국 신흥 종교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② 고려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의 사유가 향유되었고, 도교 의례가 국가적 행사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보충+심화 조선 후기의 도교 권선서

권선서는 민간 도교 경전에서 선을 권장하는 책을 일컫는 말이다. 권선서의 주된 내용은 권선징악, 즉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다. 조선 말기 유행했던 민간 도교의 대표적인 권선서로는 『공과격』이 있다. 공과격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 위해 공(선행)과 과(악행)를 기록하는 것이다. 스승이 공과표를 만들어 공과 과가 눈에 띌 때마다 기록해 월말에 합계하여 공이 많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과가 많은 자에게는 벌을 주어 풍속과 행동을 교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공으로는 남을 돕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 복을 받고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09 노자의 무위지치(無爲之治)

(2) [주요 키워드] 인위적, 무위지치, 본성

채점 기준	배점
노자가 강조한 통치자의 역할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노자가 강조한 통치자의 역할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노자가 강조한 통치자의 역할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0 장자의 제물(齊物)

(2) [주요 키워드] 편견, 분별, 도, 평등

채점 기준	배점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장자의 조언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장자의 조언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21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⑤

01 노자의 도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道)가 만물의 본체이자 만물을 낳는 생성 원리로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는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으로 형체가 없어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순자가 예(禮)에 대해 갖는 입장이다. ㄹ. 노자는 도를 도덕규범이 아닌 자연 질서로 바라보았다.

02 노자의 무위(無爲)

답 ③

제시된 그림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자연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 자연법칙을 따르며 작위(作爲)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노자는 분별적 지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② 노자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다투지 않고 아래에 처하는 겸허한 삶을 강조하였다. ④ 노자는 도가 형체가 없고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노자는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도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다.

03 장자의 수양 방법

답 ⑤

대화 속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감각 기관에 지배받지 않는 좌망(坐忘)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심재(心齋)의 수양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공자의 입장이다. ② 장자는 외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③ 맹자의 입장이다. ④ 장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04 노자와 장자의 입장

답 ⑤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노자와 장자 모두 있고 없음, 아름다움과 추함, 귀하고 천함 등이 인간의 편견에서 비롯된 상대적 분별일 뿐이라고 보면서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노자는 인위적인 인(仁)과 의(義) 등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작위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였다. ② 노자는 적은 백성이 사는 작은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다. ③, ④ 장자는 선악 등을 분별하지 않고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03 인간의 괴로움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2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삼독	08 계학	09 자력적	10 교종	11 점수	12 무아
13 윤회	14 좌선				

01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한다고 본다.

02 제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24~26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③	08 ④				

서답형 문제

09 (1) 갈애와 집착, 성냄, 어리석음 (2) 모범 답안 불교에서는 팔정도와 삼학을 통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10 모범 답안 연기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자연이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처의 자비는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긴다. 이는 나의 고통에만 고립되지 않고 나를 확장시켜 고통에 빠진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가지므로 무아의 마음에 기반한 자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면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01 석가모니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보았고, '나'라는 존재도 오온이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석가모니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생멸하고 변화하며, 고정불변하는 실체의 자아는 없다고 보았다. ㄹ.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무아(無我)의 원리를 깨달을 때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번뇌와 애욕도 소멸된다고 보았다.

02 불교의 사성제 답 ①

㉠에 들어갈 말은 '팔고', ㉡에 들어갈 말은 '삼독', ㉢에 들어갈 말은 '팔정도'이다. 고성제는 인간의 삶이 고통임을 말하며, 대표적인 괴로움으로 팔고(八苦)가 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갈애와 집착,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이 있음을 말한다. 도성제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라는 수행법을 제시한다.

03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나 사물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하며, 인간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자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보충 + 심화 오온과 무아

석가모니에 따르면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라고 규정짓는 것은 물질적인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 분별해 의식하는 '나'가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나' 안에 영원히 고정된 몸,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오온이 모두 비어 있고 실체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오온을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4 불교의 삼법인 답 ②

㉠에 들어갈 말은 '삼법인'이다. 제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법인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가리키지만, 일체개고를 더하여 사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선택지 분석

- 제법무아는 자아가 영원불변한 실체임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 제법무아는 불변하는 실체의 자아는 없다는 의미이다.
- 열반적정은 모든 존재가 사라져 공허해진 허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 열반적정은 고통과 번뇌의 불이 꺼진 열반의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05 선종의 불교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불교 종파는 선종이다. 선종은 교리 공부에 의존하지 않고 선(禪)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직접 체험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잡기 ①, ⑤ 교종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 불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06 교종의 특징 답 ②

㉠에 들어갈 말은 '교종', ㉡에 들어갈 말은 '법상종', '천태종', '화엄종', ㉢에 들어갈 말은 '정토종'이다. 교종은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인간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중시한다.

바로잡기 ㄴ. 정토종은 타력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파이다. ㄹ. 교종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엄격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지만, 그중 정토종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07 천태종과 화엄종의 특징 답 ③

(가)는 천태종, (나)는 화엄종이다. 천태종과 화엄종 모두 교종의 종파이며 특정 경전과 교리에 대한 공부를 중시한다. 화엄종은 일체중생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중생이 곧 부처라고 본다.

바로잡기 ㄱ.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고 마음 안에 지옥과 부처의 경지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 종파는 천태종이다. 정토종은 부처와 보살의 자비에 의지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종파이다. ㄴ. 선종에 대한 설명이다.

08 불교의 자비(慈悲)

답 ④

제시된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실천적 행위로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따라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나'를 확장시켜 고통에 빠진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불교의 자비는 오늘날의 생명 경시 풍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택지 분석

- 자타불이(自他不二)는 '나와 타인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자타불이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자연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부처의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고통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태도이다.
  → 부처의 자비는 무아(無我)의 마음에 기반한 자비로, 고통에 빠진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보충 + 심화 자비와 보시

자비	• 부처의 끝없는 사랑을 일컬음 • 남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마이트리(maitri)'를 번역한 '자(慈)'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 주려는 마음을 뜻하는 '카루나(karuna)'를 번역한 '비(悲)'가 합쳐진 말 • 자비의 핵심인 대자대비(大慈大悲)는 중생을 끝없이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 슬퍼하는 것
보시	• 상대방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재물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베푸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구해 주는 것도 포함됨 •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자만심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지향함

09 초기 불교의 가르침

(2) 〔주요 키워드〕 열반, 팔정도, 삼학

채점 기준	배점
불교의 관점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불교의 관점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불교의 관점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0 불교의 연기(緣起)와 자비

〔주요 키워드〕 인드라망, 무아, 부처

채점 기준	배점
불교의 연기 사상이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불교의 연기 사상이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불교의 연기 사상이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27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1 석가모니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오온(五蘊)의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임시로 구성된 존재라고 보았다. 오온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다섯 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바로잡기 ① 석가모니에 따르면 중생이 겪는 고통을 포함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 아래에서 발생한다. ② 석가모니는 무아(無我)의 원리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실체의 자아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석가모니는 삶은 본래 고통이라고 보았다.

02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

답 ②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緣起)를 주장하였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연기를 깨닫고 오온의 일시적 결합에 불과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통의 원인인 갈애와 집착[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생멸하고 변화하며 '나'도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03 선종의 점수(漸修)와 돈오(頓悟)

답 ②

갑은 점수의 수행 방식을 강조하는 반면, 을은 돈오의 수행 방식을 강조한다. 점수는 북종선에서 주장하는 수행 방식으로서 점진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고, 돈오는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수행 방식으로서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다.

바로잡기 ㄴ. 단박에 본성을 깨닫는 수행은 돈오로, 을이 강조하고 있다. ㄹ.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 수시로 닦는 점진적 수행은 점수로, 갑이 강조하고 있다.

04 교종과 선종의 사상

답 ③

갑은 교종 중 화엄종의 입장이고, 을은 선종의 입장이다. 교종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경전 공부를 중시하지만, 선종에서는 교리 공부에 의존하지 않고 좌선(坐禪)을 통해 부처의 성품을 체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선종에서는 마음을 관찰하여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의 성품인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선(禪) 수행을 중시한다.

선택지 분석

ㄴ. A: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 (아니요 / 아니요)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종파는 교종의 정토종이다.
ㄷ. B: 법(法)이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는 것인가? → C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28~3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④				

서답형 문제

15 모범 답안 주희에 따르면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서로 섞일 수도 없는 관계이다. 16 모범 답안 장자는 자신만의 관점을 시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자기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하는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것이다. 17 ㉠: 계학, ㉡: 정학, ㉢: 혜학

01 순자와 맹자의 입장 답 ④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순자에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모든 사람의 본성이 같다는 점을 간과한다.
→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고, 순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므로 맹자와 순자 모두 모든 사람의 본성이 같다고 보았다.

② A: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맹자와 순자 모두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B: 통치의 목적이 인의의 실현에 있음을 간과한다.
→ 맹자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강조하였고, 순자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으므로 맹자와 순자 모두 통치가 인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B: 규범을 제정해서 욕망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교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맹자는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지만, 순자는 예(禮)를 통해 욕망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성인이 예(禮)를 제정했다고 보았다.

02 왕수인의 입장 답 ②

제시문의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격물(格物)을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았고, 이론적 탐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양지를 실현하는 치지(致知)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에 따르면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으며,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은 본래부터 하나이다. ②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 사물에는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충+심화 양지

양지는 맹자가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양능(良能)이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양지(良知)이다. 두세 살 난 아이도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없으며, 커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양지와 양능의 양(良)은 본래부터 그러한 선험적인 것으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03 공자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사랑의 정신인 인(仁)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면서 효도와 우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맹자의 입장이다. ② 순자의 입장이다. ④ 장자의 입장이다. ⑤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04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답 ⑤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과 주희는 모두 유교 사상가로서 도덕적 실천과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중시하였다. 주희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논하였는데, 이때 기질지성은 이(理)와 기(氣)가 혼재된 것이므로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부모를 섬길 때에는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해야 한다.
→ 왕수인은 이치가 효를 행하는 주체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으므로 이치를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ㄴ. B: 앎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되 그 순서와 경중을 가려야 한다. → C

05 장자와 맹자의 입장 답 ①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중시하였지만, 장자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 도덕규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맹자는 장자에게 인의와 같은 덕목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의예지의 실마리인 사단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다고 보았으므로, 인의예지가 후천적으로 획득된다고 보지 않았다. ㄷ. 장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도에 따르는 삶을 중시하였다. ㄹ. 장자는 분별적 인식 체계를 벗어난 이상적 인간인 성인(聖人), 지인(至人), 신인(神人) 등이 되기 위해서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06 노자와 순자의 입장 답 ①

갑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자연의 도가 사라져 예(禮)와 같은 인위적인 도덕규범이 나타났다고 보았고, 순자는 성인(聖人)이 인위적으로 예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④ 노자와 순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③ 순자만 긍정할 내용이다. ⑤ 노자만 긍정할 내용이다.

07 노자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道)가 만물의 본체이자 만물을 낳는 생성 원리로서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하거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마음 안에서 무위자연을 실현하고 자연의 덕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욕망을 적게 하고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하는 허정(虛靜)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노자는 지식과 감각을 통해서는 도를 알고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노자는 작은 나라를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예법과 같은 인위적인 제도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08 순자와 장자의 입장

답 ④

갑은 순자, 을은 장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예(禮)를 배우고 익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되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도에 따라 살며 제물(齊物)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세계를 차별적이고 분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09 공자와 노자의 입장

답 ⑤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에 비해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정도(X축)와 규모가 작은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도(Y축)는 높고, 시비선악의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Z축)는 낮다.

10 한국의 도가와 도교

답 ②

한국의 도가와 도교의 기원에 관한 입장 중 자생설에 따르면 한반도에 본래부터 풍류도와 같은 도교의 원형이 자생하고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의 사유가 향유되었고, 국가적 행사로서 도교 의례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선택지 분석

- (나)에 따르면 삼국 시대 이전부터 교단 도교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 한국의 도가와 도교의 기원에 관한 입장 중 전래설에 따르면 삼국 시대 이후에 오두미교 등의 교단 도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 (라) 시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도교 양생술이 민간에서 배척받았습니다.
  → 조선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의 사유가 당대의 문화와 어우러졌고, 신선이 되기 위한 다양한 도교 양생술이 유행하였다.

11 석가모니의 입장

답 ②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中道)의 수행법인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였다.

바로잡기 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보았으며, 만물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석가모니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보았다.

12 교종과 선종의 입장

답 ⑤

갑은 교종, 을은 선종이다. 교종에 비해 선종은 깨달음의 방법으로 좌선(坐禪)을 강조하는 정도(X축)와 마음을 관찰하여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높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전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정도(Z축)는 낮다.

13 장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답 ④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고, 석가모니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깨달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팔고(八苦)에는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온성고가 있다.

선택지 분석

ㄱ. A: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치(禮治)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치를 강조하는 사상가는 순자이다.
ㄷ. B: '나'가 실체가 없다는 무아(無我)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 C

14 왕수인과 선종의 입장

답 ④

갑은 왕수인, 을은 선종 사상가인 혜능이다. 왕수인은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는 양지를 근거로 순수한 본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혜능을 비롯한 선종에서는 마음속의 불성(佛性)을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③ 왕수인과 혜능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② 혜능만 긍정할 내용이다. ⑤ 왕수인만 긍정할 내용이다.

15 주희의 입장

〔주요 키워드〕 이, 기

채점 기준	배점
이와 기가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음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는 내용과 섞일 수 없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이와 기가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음을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6 장자의 입장

〔주요 키워드〕 시비, 기준, 편견

채점 기준	배점
자신만의 관점을 기준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하는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는 장자의 비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자신만의 관점을 기준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하는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는 장자의 비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7 불교의 삼학(三學)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으로 삼학을 제시한다. 삼학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범하는 나쁜 짓을 방지하고 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계학(戒學),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평안한 경지에 이르는 정학(定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진리를 깨닫는 혜학(慧學)을 말한다.

II 한국 윤리 사상

01 사상적 차이는 어떻게 해소되고 조화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36쪽

01 ○ 02 × 03 × 04 ㉠ 05 ㉡
06 진여문 07 돈오점수 08 일심을 09 의천 10 육바라밀은
11 여래장 12 정토

02 원효는 당대의 불교 쟁론들을 화쟁하여 화엄 교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교종 중심의 불교관 안에서 선종과 조화를 추구하는 내외겸전을 주장한 것은 의천이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36~38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⑤

서답형 문제

09 (1) 원효 (2) 모범 답안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모두 가족 간의 단결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견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10 (1) 정혜쌍수 (2) 모범 답안 ㉠: 지눌에 따르면 선정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 지눌에 따르면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01 원효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인간의 마음에 두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 중 진여문은 분별과 대립을 벗어난 청정하고 허공 같은 마음 상태이고, 생멸문은 분별하고 차별해 번뇌의 고통이 생멸하는 마음 상태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면 언제나 참되고 한결같은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불경을 읽지 못해도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외우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정토 신앙을 설파하였는데, 이는 실천과 수행에 일정한 형식과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⑤ 원효에 따르면 일심은 모든 법,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거로, 수행을 통해 없애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02 원효의 불교 사상 답 ③

제시된 내용의 갑은 원효이다. 원효는 여러 교리와 사상이 모두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다양한 종파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화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원효는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과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② 원효는 번뇌의 생멸문 속에도 청정의 진여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원효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원효는 종파 불교 이론들의 다름의 가치는 인정하면서 일심의 바탕 위에서 화쟁시켰다.

03 원효의 불교 사상 답 ③

㉠은 화쟁 사상 또는 회통 사상, ㉡은 일심이문이다. 원효는 종파 불교 이론들의 대립을 회통시켜 다름의 가치는 인정하면서 일심의 바탕 위에서 화쟁시켰다. 이를 통해 대립하고 분열하던 종파 불교를 통합시켜,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바로잡기 ㄱ. 원효는 인간의 본성에 언제나 참되고 한결같은 부처의 마음이 있으며, 이를 불성 또는 여래장이라고 보았다. ㄹ. 원효는 분별과 대립을 벗어난 청정하고 허공 같은 마음 상태를 진여문, 분별하고 차별해 번뇌의 고통이 생멸하는 마음 상태를 생멸문이라고 보았다.

04 원효의 일심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고 조화시키려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체의 이원적 분별에서 벗어나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심의 이론을 확장해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고 화쟁시켰다. 또한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④ 원효는 종파 불교 이론들의 대립을 회통시켜 다름의 가치는 인정하면서 일심의 바탕 위에서 화쟁시켰다.

05 의천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교(敎)를 중심으로 선(禪)의 수행 방법인 관(觀)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택지 분석

①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참선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선종 중심의 불교관 안에서 교종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의천은 교종 중심의 불교관 안에서 선종과 조화를 추구하였다.

④ 교리를 경시하게 되더라도 내면을 닦는 수행인 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 의천은 교와 선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⑤ 불교와 유교, 도교는 각각 인간관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 의천은 불교·유교·도교의 사상이 다르지 않다는 삼교 일치론을 펼쳤다.

06 지눌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수행법으로 제시하였다. 돈오점수에서 '돈오'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지눌은 돈오하더라도 오랜 번뇌의 습성은 바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깨달음 이후에 습성을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지눌은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③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를 수행법으로 제시하였다. ④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단박에 깨쳐야 한다고 보았다. ⑤ 지눌은 돈오하더라도 오랜 번뇌의 습성은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07 의천의 교관겸수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한국 천태종을 개창하고 천태종의 지관 수행으로 선종을 포섭하여 선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ㄴ. '지(止)'는 정신을 집중해서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 마음을 고요히 하는

ㄹ.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함으로써 점수하여 깨달음 이후에도 습성을 제거해야 한다. → 지눌의 입장이다.

08 한국 불교 윤리 답 ⑤

의천은 화엄종에 속한 승려였지만 교종 간 이론적 대립을 화쟁시키고, 천태종의 지관 수행을 통해 교종과 선종을 융합하였다.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하면서, 선과 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한국 불교는 여러 종파를 아우르고 통합하려는 회통적 경향을 지녔다. ⑤ 한국 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더불어 자비의 실천을 통한 타인 구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09 원효의 회통과 화쟁

(2) 〔주요 키워드〕 대립, 갈등, 차원, 통합

채점 기준	배점
원효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 조언할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원효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 조언할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하

10 지눌의 정혜쌍수

(2) 〔주요 키워드〕 마음, 집중, 고요, 사물, 본질

채점 기준	배점
지눌이 제시한 선정과 지혜의 의미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지눌이 제시한 선정과 지혜의 의미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지눌이 제시한 선정과 지혜의 의미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39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1 원효와 지눌의 입장 답 ②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계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단박에 깨우치는 돈오 이후에 몸에 밴 번뇌의 습관을 점차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ㄴ. 갑: 화쟁(和諍)을 이루기 위해 각 종파의 특수성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
→ 원효는 다름의 가치는 인정하면서 다양한 종파 불교 이론들을 일심의 바탕 위에서 화쟁시켰다.

ㄹ. 을: 작용인 지혜보다 본체인 선정을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
→ 지눌은 돈오 이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본체인 선정과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02 의천의 수행법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종이 마음 공부는 도외시하고 경전 공부에만 힘쓰는 것을 비판하고, 선종이 마음 공부에만 힘쓰고 경전 공부를 도외시하는 것도 비판하였다. 이처럼 의천은 교와 선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바로잡기 ② 의천은 교종 중심의 불교관 안에서 선종과 조화를 추구하는 내외겸전과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③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④, ⑤ 지눌의 입장이다.

03 의천과 지눌의 입장 답 ④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단박에 깨우친 후 몸에 밴 번뇌의 습관을 점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① A: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야 한다. → C

② A: 불교계의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 B

③ B: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우칠 수 있다. → C

⑤ C: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習氣)가 사라진다.
→ 지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돈오' 이후에도 습성을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04 한국 불교 윤리의 특징 답 ⑤

한국 불교가 자비의 실천을 통한 타인 구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한국 불교의 사회 참여적 성격을 보여 준다. 이는 자비심으로 타인에게 부처의 가르침과 사랑을 베푸는 보시의 실천과 관련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효가 무애가를 부르며 중생을 제도했던 것과 지눌이 불교 정화 운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것 등이 있다. ⑤ 자비 윤리의 실천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라는 대승 불교의 정신과 이어진다.

02 도덕적 감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42쪽

01 × 02 × 03 ○ 04 ㉠ 05 ㉡
06 기(氣) 07 같으며 08 칠정 09 기발이승 10 성
11 주일무적 12 이기지묘 13 이통기국

01 이황과 이이 모두 사단을 순수하게 선한 감정으로 보았다.

02 이황은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42~46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②

서답형 문제

17 (1) 이황 (2) 모범 답안 사단은 순수하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인 이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기가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고, 칠정은 사람들 사이에 타고난 성향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가 주도하여 이가 기에 탐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18** (1) ㉠: 이, ㉡: 기 (2) 모범 답안 이이는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교기질의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교기질은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규범을 따름으로써 일상적 감정을 조절하는 수양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이는 경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이치이자 마음의 본성인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01 이황의 이기론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주희의 이기론을 계승하여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황은 이는 존귀하며 기는 비천한 것이라는 이귀기천(理貴氣賤)과,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가지며 이와 기가 각각 발하여 다른 감정을 표출해 낸다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ㄹ. 이황은 이는 기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02 이황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일어나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감정인 반면, 칠정은 기의 주도에 따라 일어나는 가선가악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⑤ 이황은 이와 기가 현실 사물과 현상에 함께 들어 있어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다. ③ 순자의 입장이다. 이황은 인간의 본연지성은 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하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의 입장이다.

03 이황의 이기론 답 ②

㉠에 들어갈 말은 '사단과 칠정', ㉡에 들어갈 말은 '사단'이다. ㉢에 들어갈 말은 '이는 존귀하며 기는 비천함'이며, ㉣에 들어갈 말은 '이와 기가 각각 발하여 다른 감정을 표출해 냄'이다. 이황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고 이와 기가 각각 발하여 전혀 다른 감정을 표출해 낸다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이황은 도덕적 감정인 사단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ㄷ. 이귀기천(理貴氣賤)은 이는 존귀하며 기는 비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04 이황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인간의 본성에 보편적이고 순수한 도덕 원리인 이(理)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연지성은 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황은 이가 발한 것이 사단, 기가 발한 것이 칠정이라고 보았으며, 기보다 이의 주재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⑤ 이황은 인간의 여러 감정 중에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사단과 가선가악(可善可惡)한 칠정이 있다고 보았다.

05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황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잡기 ① 이황은 사단의 근원을 이, 칠정의 근원을 기로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② 이황은 육체의 영향으로 발현된 일상적 감정을 칠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③ 이황은 도덕 원리인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 들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순선한 감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06 경에 대한 이황의 입장 답 ④

이황은 도덕 원리인 이(理)를 고요하게 성찰하는 경(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주일무적), 가지런한 몸가짐과 엄숙한 태도(정제엄숙), 항상 깨어 있는 정신 상태(상성성)를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마음이 순수한 도덕 원리인 '이'와 하나가 되는 경지(심여이일)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정신을 집중해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 것은 장자이다.
- 사단보다는 칠정과 같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따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 이황은 순수한 도덕 본성에 토대를 둔 사단에 주목하여 마음이 항상 도덕 원리인 이를 성찰하는 경을 제시하였다.

07 이황의 심성론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본연지성은 이(理)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하며, 기질지성은 기질에 내재된 이로서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이황은 일반 감정인 칠정은 기의 주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ㄹ. 이황은 인간의 순수한 도덕 본성은 본연지성, 즉 기질을 포함하지 않고 가리켜 말한 이(理) 그 자체라고 강조하였다.

08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황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이 순수하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인 이(理)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순선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이황은 칠정을 주재하는 것은 기라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③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한 것,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므로 인간의 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이다. 따라서 이황은 각 질문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이황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그 근원이 다른 감정이지만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09 이이의 이기론 답 ⑤

이이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한 관계라는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선택지 분석

①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때에는 서로가 쓸모 있게 쓰인다고 보았다. → 이이는 오직 기만이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경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서 기질지성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 이이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기질을 극복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의 진실한 본체인 성(誠)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③ 현실에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기불상잡에 상대적으로 주목하였다. → 이기불상리

④ 천지 만물에 공통으로 내재하여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리라고 보았다.
→ 이이는 이가 천지 만물에 공통으로 내재하며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는 형태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물마다 제각기 다르고 국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10 이이의 이기론 답 ③

이이는 이황과 마찬가지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중요하게 탐구하였지만, 설명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이는 형태가 없는 이는 만물에 공통으로 내재하고, 형태가 있는 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타는 한 가지만 가능하다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것이다. ③ 이와 기 모두의 운동성을 인정하며 이기호발설을 주장했던 이황과 달리, 이이는 이가 운동성이 없고 기만 운동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11 이이의 입장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국한되고 불완전한 기로 인해 동일한 도덕적 본성을 지닌 인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이는 스스로의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힘써 행하는 자세를 중시하였다.

선택지 분석

-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각기 다르므로 둘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같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 인간의 감정은 모두 이(理)가 움직이고 기가 그에 올라탄 것이다.
  →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그에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12 이황과 이이의 입장 답 ⑤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라는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타는 것이라는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로 파악하였다.

바로잡기 ① 이이는 현실에서 이가 기를 발하게 하는 까닭이라고 보았다. ② 이이는 이가 천지 만물에 공통으로 내재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고 보았다. ③ 이황은 칠정을 기가 발하여 이가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④ 이황과 이이 모두 경(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13 사단에 대한 이이의 입장 답 ④

(가)의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이 칠정 중 특별히 순선무악한 부분으로,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사단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감정을 말한다. ② 이이는 사단이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 중 순선무악한 것이라고 보았다. ③ 이황의 입장이다. 이이는 사단을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보았다. ⑤ 이이는 사단이 칠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보충 + 심화 **사단과 칠정**

사단(四端)	•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도덕적인 마음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칠정(七情)	• 인간이 지닌 일곱 가지의 일반 감정 •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14 이황과 이이의 입장 답 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순선한 감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가지며, 이와 기가 각각 발하여 다른 감정을 표출해 낸다는 이기호발을 주장함으로써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이이는 기의 현실적 변화에 주목하여 심성론을 기발이승으로 설명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같으며, 두 감정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관계로서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 중에서 특별히 순선무악한 부분을 사단이라고 부른다고 보았다. ⑤ 이이는 주희의 성리학을 계승하여 이기론의 논리 구조하에서 개인과 사회의 결함을 극복하는 윤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15 이이의 경세론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사회 제도도 점차 결함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국방 등 실질적인 영역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제도적 개혁론인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경장은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매듯이,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이는 백성의 편안을 위해 법을 시의적절하고 신중하게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⑤ 이이는 경장의 시대가 오면 왕도 정치와 민본주의의 범주 안에서 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이이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고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까닭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이가 맑은 기를 타고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ㄴ. 이가 움직여 기를 낳는 것이므로, 기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작용성이 있다. → 이이는 기만 작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ㄷ. 순수한 도덕 본성인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
→ 이이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며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17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황의 입장

(2) 〔주요 키워드〕 사단, 칠정, 이, 기, 주도

채점 기준	배점
이황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발생 원인을 이와 기의 역할 차이에 근거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황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발생 원인을 이와 기의 역할 차이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중
이황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발생 원인을 서술하였으나 이와 기의 역할 차이에 근거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8 이이의 수양론

(2) 〔주요 키워드〕 교기질, 경

채점 기준	배점
이이가 인간의 도덕적 결함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수양론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이가 인간의 도덕적 결함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수양론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이이가 인간의 도덕적 결함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수양론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4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1 이황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선하지만, 기는 현상적 요소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비천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① 사단과 칠정은 정(情)으로, 모두 이가 발한 것이다.
→ 이황은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지만 사단은 이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②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③ 예(禮)를 바탕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순자의 입장이다. 이황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④ 인간의 본연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 → 기질지성

02 이황의 수양론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행위를 주재하는 마음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경(敬)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이황은 이와 기는 현실 사물과 현상에 함께 들어 있어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다. ② 노자의 입장이다. ④ 이황의 경은 도덕 원리인 이를 고요하게 성찰하여 마음이 순수한 도덕 원리인 이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⑤ 왕수인의 입장이다.

03 이이와 이황의 입장 답 ②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한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같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이황의 입장만 해당한다.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본 반면, 이이는 사단을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이이의 입장만 해당한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의 근원은 같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므로 칠정 외에 다른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황은 도덕적으로 순수하게 선한 감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이이와 이황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이이와 이황 모두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뒤섞이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주장하였다. ⑤ 이이의 입장만 해당한다. 이황에 따르면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지닌다.

04 이이의 윤리 사상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기에 올라탄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므로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③ 이이는 이는 운동성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본연지성은 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사단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⑤ 이이는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이 되거나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03 도덕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50쪽

01 × 02 ○ 03 × 04 ㉡ 05 ㉠
06 양지 07 후천적 08 심즉리 09 신독이 10 영지의 기호
11 경의 12 지행합일 13 자주지권

01 조식은 학문이 자기 수양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3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50~52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①
07 ④ 08 ③

서답형 문제

09 (1) 모범 답안 정제두가 말하는 양지는 마음의 참모습이자 본체로, 인간 누구나 보편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2) 모범 답안 정제두는 양지가 밝아지면 양지가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에 관한 별도의 이치 탐구가 없더라도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10 (1) 모범 답안 정약용은 본성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과 같은 것이며,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2) 모범 답안 정약용은 인간이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01 조식의 입장 답 ⑤

제시된 편지를 쓴 사상가는 조식이다. 조식은 학문이 자기 수양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경의(敬義) 정신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③ 조식은 경전 연구와 이론적 탐구보다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② 조식은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실천을 결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조식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나 인간 본성 구조 등에 관한 이론적 탐구만 일삼는 당시 성리학의 풍조에 반대하였다.

02 조식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이황이 조선 유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조식은 선현들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바로잡기 ① 조식은 수양이 경전 연구와 이론적 탐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③ 조식은 경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작은 사사로운 욕망이라도 끊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조식은 학문이 자기 수양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조식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나 인간 본성 구조 등에 관한 이론적 탐구만 일삼는 성리학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03 정제두의 양명학 답 ③

제시된 내용의 '어느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에 따르면 양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진다(ㄷ). 정제두는 양지가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올바르지 않음이 생긴다고 보았다(ㄴ).

바로잡기 ㄱ. 정제두는 도덕적 이치인 이(理)가 이미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ㄹ. 정제두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외부가 아닌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예'가 되어야 한다.

04 정제두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생리가 스스로 생생하게 활동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리를 부여받은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⑤ 정제두는 양지(良知)가 밝아지면 사물에 관한 별도의 이치 탐구가 없더라도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앎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② 정제두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인 나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③ 정제두는 생리는 스스로 밝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스스로 생생하게 활동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05 정제두의 윤리 사상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양명학을 집대성하여 강화학파의 창시자가 되었다. 정제두는 당시 성리학자들의 지나친 이론적 탐구를 비판하면서 도덕적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선택지 분석

- 왕수인의 사상을 배격하고 독자적인 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제두는 왕수인의 주장을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수립하였다.
- 심즉리(心卽理)를 부정하고 마음과 이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정제두는 양명학 전통에 따라 심즉리를 근본 원리로 수용하였다.

06 정약용의 인성론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사단을 사덕의 존재를 알려 주는 실마리로 보았던 성리학과 달리 사단을 사덕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ㄹ.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이 사단이 아닌 사덕이라고 보았다.

07 정약용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제시하였다.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 일종의 경향성인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정약용은 일상에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② 정약용은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확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사덕(인의예지)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인간만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 성리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중시하고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08 정약용의 입장

답 ③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과 달리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도덕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며 일상 행위 속에서 실천하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기호하며 살아가기 위한 수양의 자세로 신독(愼獨)을 강조하였다. ③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지만 인간이 언제나 선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09 양지에 대한 정제두의 입장

(1) [주요 키워드] 마음, 본체, 보편적

채점 기준	배점
정제두가 생각한 양지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정제두가 생각한 양지의 의미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능동, 이치, 탐구

채점 기준	배점
정제두의 입장에서 양지가 도덕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정제두의 입장에서 양지가 도덕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하

10 정약용의 인성론

(1) [주요 키워드] 경향성, 선, 악

채점 기준	배점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자주지권, 선, 악, 선택

채점 기준	배점
정약용이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정약용이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5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1 정제두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생리가 스스로 생생하게 활동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리를 부여받은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정제두는 인간이 생리를 갖추고 있으므로 양지가 밝아지면 양지가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에 관한 별도의 이치 탐구가 없더라도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와 행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고 보았다. ㄴ. 정제두는 이치가 사물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다. 정제두에 따르면 인간에게 부여된 이치는 생리로, 이는 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된다.

02 정약용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기호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신독(愼獨)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일상에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학문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정약용은 자주지권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03 조식의 경의 정신

답 ⑤

제시된 대화의 사상가는 조식이다. 조식은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천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론적 탐구나 학습보다는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의(敬義) 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경'이란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 바르지 않은 생각이나 욕망이 한 치라도 스며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의'란 밖으로 실천을 결단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단호하게 처신하는 것을 뜻한다. ⑤ 조식은 경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작은 사사로운 욕망이라도 끊어 내야 한다고 보았다.

04 정약용의 입장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하늘이 부여한 기호와 자주지권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 보았다. 또한 인간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닌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인의예지의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다.
  → 정약용은 사단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인의예지의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 해야 획득된다.
  → 정약용은 인간에게 사단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54~57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②

서답형 문제

15 (1) 모범 답안 돈오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단박에 깨닫는 것이고, 점수는 깨달음 이후에 오래된 번뇌의 습성을 제거해 나가는 점진적 수행이다. (2) 모범 답안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지눌과 의천은 선과 교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닦아야 함을 강조하며 교종과 선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16 (1) 모범 답안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와 이황 모두 사단이 순선무악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2) 모범 답안 이이와 이황 모두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을 인정하였지만, 이이는 이기불상리를 더 강조하였고, 이황은 이기불상잡을 더 강조하였다.

01 원효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여러 불교 종파 이론의 대립을 회통시켜 일심 위에서 화쟁시키고자 하였다.

바로잡기 ① 원효는 종파 간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각 종파의 주장은 모두 석가모니의 말씀이라는 같은 근본을 지니고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②, ④ 원효는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과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며, 염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정토 신앙을 설파하였다. ⑤ 원효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02 의천의 윤리 사상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와 관의 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종 중심의 불교관 안에서 선종과 조화를 이루는 내외겸전(內外兼全)과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②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의천을 비롯한 불교 사상가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④, ⑤ 의천은 경전 공부와 명상 수행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태도를 경계하였고, 교학 수행뿐만 아니라 지관 수행도 중시하는 교관겸수를 내세웠다.

03 지눌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하고자 하였고, 선종과 교종의 쟁론은 무의미하며 궁극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진리를 깨달은 뒤에 나쁜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04 원효, 의천, 지눌의 윤리 사상 답 ⑤

갑은 원효, 을은 의천, 병은 지눌이다. 원효는 당대의 종파 교리의 대립을 회통시키고자 하였고, 의천은 한국 천태종을 개창하고 지관 수행으로 선종을 포섭하여 선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지눌은 불교 정화 운동인 정혜결사 운동을 일으켜 대중에게 지지를 받았다. 원효와 의천, 지눌의 사상에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담겨 있다. ⑤ 원효, 의천, 지눌을 비롯한 한국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과 더불어 자비의 실천을 통한 타인 구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05 이황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이와 기의 결합으로 보았고,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 불상잡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불상리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선택지 분석

- 본연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
  → 이황은 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한 도덕 본성인 본연지성이 발하여 나타난 사단은 순선무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연지성이 발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 사단은 칠정 중 특별히 순선무악(純善無惡)한 부분을 일컫는다.
  →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06 이이와 이황의 입장 답 ②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은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사단 중 하나이다. 이황과 이이 모두 인간이 시비지심을 비롯한 사단을 본래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황은 사단을 이(理)가 발한 것으로 보았고, 이이는 사단이 칠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기(氣)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이황과 이이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성리학에 따르면 이는 형체가 없고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기는 형체를 갖추어 나타나는 물질 영역에 해당한다. ③ 이이만 긍정할 내용이다. 이황은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이황과 이이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이황과 이이는 사단이 순선무악하고 칠정이 가선가악(可善可惡)하다고 보았다. ⑤ 이황만 긍정할 내용이다. 이이는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경우만 있다고 보며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07 이황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감정은 본성이 사태에 직면하여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황은 순수한 도덕 본성에 토대를 둔 사단에 주목하여, 마음이 항상 도덕 원리인 이를 고요하게 성찰하는 경(敬)의 태도를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ㄱ. 이이의 입장이다. 이황은 이도 주재성, 운동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ㄴ.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것이다.

08 이황과 이이의 윤리 사상 답 ③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이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이는 사단이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이 가선가악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올라탄 것인가?
→ (예 / 예)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올라타는 것이라는 데에 이황과 이이 모두 동의하였다.
ㄹ. C: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

09 이이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도덕 감정인 사단과 일반 감정인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단과 칠정의 유래 연원을 동일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이이는 도덕 감정인 사단이 일반 감정인 칠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② 이황의 입장이다. 이이는 사단인 시비지심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이이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이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10 정약용과 이이의 입장 답 ④

갑은 정약용, 을은 이이이다. 이이는 도덕이 이미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며,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함으로써 도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이이에게 도덕은 선의 기호를 실천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이이는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이 곧 이치라고 보았다. ② 이이는 누구나 선한 마음인 사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⑤ 이황이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이다.

11 정약용과 이황의 입장 답 ①

갑은 정약용, 을은 이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와,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는 자주지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황도 인간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등 사단을 선천적으로 지닌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ㄷ. B: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악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 C
ㄹ. C: 칠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 사단

12 정제두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정제두는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이치로서 이(理)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양지가 밝아지면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고 보았으며, 도덕 판단의 기준 또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정약용의 입장이다. ② 정제두는 심즉리(心卽理)를 근본 원리로 수용하며 마음 자체가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보았다. ④ 정제두는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인 양지가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⑤ 조식의 입장이다.

13 조식의 입장 답 ⑤

사상가 갑은 조식이다. 조식은 이론적 탐구에만 집중하는 당시 성리학의 풍조를 비판하며 경의(敬義)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 유학적 전통을 보여 주었다. 조식에 따르면 경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사사로운 욕망이라도 끊어 내야 한다.

바로잡기 ① 장자의 입장이다. ② 정약용의 입장이다. ③ 노자의 입장이다. ④ 왕수인의 입장이다.

14 정약용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자주지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신독(愼獨)의 자세를 중시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선을 기호하며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ㄹ. 이황의 입장이다.

15 지눌과 의천의 입장

(1) [주요 키워드] 부처, 깨달음, 점진적 수행

채점 기준	배점
돈오와 점수의 의미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돈오와 점수의 의미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돈오와 점수의 의미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교종, 선종, 융합

채점 기준	배점
지눌과 의천의 주장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지눌과 의천의 주장의 공통점을 서술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하

16 이이와 이황의 윤리 사상

(1) [주요 키워드] 사단, 순선무악, 감정

채점 기준	배점
사단에 대한 이이와 이황의 공통된 견해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사단에 대한 이이와 이황의 공통된 견해를 서술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

채점 기준	배점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에 대한 이이와 이황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에 대한 이이와 이황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에 대한 이이와 이황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III 서양 윤리 사상

01 윤리적 삶에 대한 서양의 물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62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자연 철학자 08 이데아 09 중용 10 그리스도교
11 프로타고라스 12 지적인 13 서사시 14 철인 통치

02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대나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보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62~64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① 05 ③ 06 ④
07 ⑤ 08 ⑤

서답형 문제

09 모범 답안 프로타고라스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대나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10 모범 답안 플라톤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욕망과 기개를 잘 다스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맡은 일을 잘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11 모범 답안 ㉠은 중용이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로,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를 의미한다.

01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답 ⑤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사상을 수용해 교리를 체계화하고 서양 중세 윤리 사상을 형성하였다.

바로잡기 ㄱ.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자연법칙이나 근원적인 요소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02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주의적 진리론과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바로잡기 ㄴ. 자연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의 입장이다. ㄹ.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03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대화 상대자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지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 합일설(知德福合一說)을 주장하였다. ②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과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인 사유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04 고대 그리스 사상 답 ①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는 우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자연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근원이 수(數)라고 주장하였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모두 사람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전환해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와 같은 윤리 문제를 탐구하였다.

05 플라톤의 윤리 사상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이 각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정의가 이루어지듯이,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사물의 본모습인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추구할 수 있는 철학자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플라톤은 영원불변하는 실재인 이데아는 현실이 아닌 이데아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ㄹ.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06 플라톤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국가의 세 계층이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특히 국가의 생산자 계층에서 절제의 덕을 더욱 잘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데아는 현실 세계 밖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통치자는 용기의 덕을 지녀야 하고 방위자는 지혜의 덕을 지녀야 한다.
  →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지녀야 하고, 방위자는 용기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07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행복을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행위는 저마다 추

구하는 목적이 있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대한 앎이 있더라도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08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앙심, 시기, 도둑질, 살인 등과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감정과 행동은 결코 '좋음'이 될 수 없기에 중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였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으로 용기, 절제, 친절 등이 있다고 보았으며, 철학적 지혜, 논리적 추론 등은 지적인 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라고 보았다.

09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주요 키워드〕 보편적, 진리, 도덕규범

채점 기준	배점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소피스트)의 입장의 차이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소피스트)의 입장의 차이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0 인간 영혼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주요 키워드〕 이성, 욕망, 기개, 조화

채점 기준	배점
인간 영혼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인간 영혼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1 중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주요 키워드〕 중용, 상태, 적절

채점 기준	배점
㉠이 중용임을 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 중용임을 썼으나, 그 의미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이 중용임을 쓰지 못하고, 그 의미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65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1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답 ④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피스트들은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대와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① A: 우주의 근원이 수(數)임을 간과한다.
→ 우주의 근원이 수라고 본 것은 피타고라스이다.

② A: 덕을 참으로 안다면 덕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B

③ B: 수사학이 세속적 성공을 얻는 데 유용함을 간과한다.
→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이 세속적 성공을 얻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⑤ B: 인간과 사회에 관한 윤리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모두 인간과 사회에 관한 윤리 문제를 탐구하였다.

0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영혼의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적인 덕은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품성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중용의 상태인지 안다 하더라도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면 옳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고선이며,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인지를 알려 준다고 보았다.

0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답 ⑤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보편적 좋음인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좋음은 없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중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영혼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예 / 예)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개, 욕망으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사고와 추론을 담당하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감각이나 욕구와 같이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영양이나 성장과 같이 이성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ㄷ. B: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지혜의 덕만을 지녀야 하는가?
→ 플라톤은 이성은 지혜의 덕을, 기개는 용기의 덕을, 욕망은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 부분 모두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04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답 ⑤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감각적 경험과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인 사유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고의로 나쁘거나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대한 앎이 있더라도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 및 순수 사유 활동을 하는 지적인 덕이 일차적으로 행복하고, 습관을 통해 형성된 품성적인 덕은 이차적으로 행복하다고 보았다. 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02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68쪽

01 ○	02 ○	03 ×	04 ㉡	05 ㉠	06 고통
07 소규모	08 최소한	09 의도	10 자연법	11 원자	12 이성
13 정념					

03 스토아학파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68~72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①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③	16 ①		

서답형 문제

17 (1) 갑: 에피쿠로스학파, 을: 스토아학파 (2) 모범 답안 에피쿠로스학파는 이성이 욕구를 분별하고 자연과 사물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이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로서, 만물의 생성과 운행을 이끄는 본질적인 법칙이라고 보았다. **18** (1) 부동심 (2) 모범 답안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따르고, 이성적 태도를 바탕으로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금욕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01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 답 ②

제시된 내용에서 설명하는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쾌락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등장하였다.

선택지 분석

- 공동체적 행복의 실현이 주요한 탐구 주제로 부각되었다.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적 행복의 실현이 주요한 탐구 주제로 부각되었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하였다.
  →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02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였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줄이는 절제와 검소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탐닉하면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쾌락을 원하게 되어 결국에는 원래 추구하던 쾌락을 얻기보다 고통과 근심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ㄴ. 에피쿠로스는 정치적인 야망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반대하고, 공적인 삶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료 분석

쾌락은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보다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에피쿠로스는 무분별한 욕구 충족이나 사치스러운 향락에서 오는 쾌락은 순간적이고 고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3 에피쿠로스의 평정심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추구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분별하여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는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부동심이다.
-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얻는 쾌락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느껴지는 평온함을 추구하였다.

04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감각과 영혼이 소멸하여 원자로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죽었을 때는 죽음의 고통 자체를 느낄 방법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05 욕구의 유형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본성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등이, 본성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에는 성욕, 식도락 등이, 본성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에는 명예, 부 등이 있다고 보았다.

06 욕구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⑤

에피쿠로스는 본성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고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본성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나 본성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성적으로 고통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에피쿠로스는 본성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제거하기보다는 고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정의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잡기 ②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도덕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따라서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③ 에피쿠로스는 옳고 그른 행위들이 본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쾌락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 상호 간의 협약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④ 에피쿠로스는 정의를 사람들이 서로 해악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맺어 도출해 낸 규범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⑤ 에피쿠로스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은 없고, 옳고 그름은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상호 이익을 위해 유동적으로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08 에피쿠로스의 윤리 사상 답 ③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줄이는 절제와 검소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에피쿠로스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기에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운명의 정해짐이 없으므로 운명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09 스토아학파 답 ②

(가)에 들어갈 말은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는 출신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또한 우주가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인 이성의 원리에 따라 운행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이성을 본성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ㄹ. 스토아학파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으며, 인간이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아우렐리우스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에 도달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스토아학파는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이성적 태도를 바탕으로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금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⑤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④ 스토아학파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11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답 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플라톤의 입장이다. ② 스토아학파는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④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12 스토아학파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문의 사상가는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도를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자연법을 제시하였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이자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법칙이며, 신의 명령이다. ②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자료 분석

우주의 본성은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이성적 현상이다. 이를 기억하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대처하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 스토아학파는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13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①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신의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의 충족을 인정하였지만 고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평정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에피쿠로스, 부동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스토아학파이다. ㄹ. 에피쿠로스의 입장만 해당한다.

14 스토아학파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이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로서, 만물의 생성과 운행을 이끄는 본질적인 법칙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연법을 결과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따른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스토아학파는 온갖 욕망과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15 스토아학파의 윤리 사상 답 ③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정념은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 과도한 충동으로,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영혼 안의 움직임이다. 부동심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외적인 것에 의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은 상태이다.

선택지 분석

- (가)는 신의 섭리로부터 독립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부동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이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로서, 만물의 생성과 운행을 이끄는 본질적인 법칙이라고 보았다.
- (라)는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 실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16 스토아학파의 세계 시민주의 답 ①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른 모든 인간들을 인류애로써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의무를 인류 공동선 실현이라는 범위까지 확장하였다. ①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같은 질서 아래에 살고 있고, 하나의 우주의 일부이다.

17 이성의 역할

(2) 〔주요 키워드〕 욕구, 분별, 신의 섭리, 자연의 질서

채점 기준	배점
에피쿠로스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과 스토아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에피쿠로스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과 스토아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에피쿠로스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과 스토아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역할을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2) 〔주요 키워드〕 의무, 이성, 금욕

채점 기준	배점
스토아학파에서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실천 방안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스토아학파에서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실천 방안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73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1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답 ②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지적인 교류와 친밀함을 느끼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의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좁은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공동선 실현이라는 범위까지 확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에피쿠로스에게 인류의 공동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최종 목적임을 간과한다.
→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추구하였다.

③ A: 은둔 생활을 하며 우정을 나누고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 B

④ B: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통해 평정심에 이르고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⑤ B: 고통의 감소보다 쾌락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에서 쾌락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2 스토아학파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스토아학파는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③ 스토아학파는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이성적 태도를 바탕으로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금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모든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④ 스토아학파는 부와 명예 등 외적인 조건의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이성을 본성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03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답 ③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며 정치적 권위의 단위가 도시 국가인 폴리스에서 제국의 범위로 확장되어 폴리스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붕괴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를 통한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였다.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모두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적 숙고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 유대감이 발달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보충+심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차이점	• 평정심 추구 • 본성적(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추구 • 은둔과 우정의 삶 추구	• 부동심 추구 • 정념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추구 •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및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강조
공통점	•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 추구 •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적 숙고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봄	

04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의 윤리 사상 답 ④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스토아학파는 평온한 삶을 위해 어떤 정념이든 초연하게 대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적 활동이 집착, 좌절, 다툼, 두려움, 분노 등을 불러일으켜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지적인 교류와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모든 정념을 제거해 부동심에 도달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ㄷ. C: 쾌락은 선이므로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가?
→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줄이는 절제와 검소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 신앙과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76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내면적 08 사랑 09 도덕적 악 10 아리스토텔레스
11 황금률 12 만인 사제주의 13 예정설

02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신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이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03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근거한 자연법 윤리를 지향하였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76~78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⑤
07 ③ 08 ①

서답형 문제

09 모범 답안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완전한 신에 비해 불완전하고,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존재의 불완전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존재의 불완전성에서 선의 결핍으로서의 자연적 악이 발생한다. 한편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 생겨난 선의 결핍으로 도덕적 악이 발생한다.

10 모범 답안 아퀴나스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라는 예비적 단계의 덕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1 모범 답안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을 바탕으로 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근검절약하고 신의 영광을 위해 직업 노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01 유대교의 특징 답 ②

(가) 종교는 유대교이다. 유대교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았다는 선민사상과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십계명은 인간 사이의 올바른 태도를 규정한다.

바로잡기 ㄴ. 유대교는 율법을 신의 명령이라고 본다. ㄹ. 십계명은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명령한다.

02 예수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예수이다. 예수는 유대 민족만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을 신이 창조한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신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보편 윤리로서의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웃 간에도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예수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율법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내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03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완전한 실재성을 지닌 영원불변한 존재로 최고선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대상이다.

바로잡기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사랑과 은총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04 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답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이라고 보았다. 또한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닌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자연의 질서에 거스르며 인위적인 제도를 만듦으로써 악이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의 불완전성에서 선의 결핍으로서의 자연적 악이,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도덕적 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인간의 노력과 신에 대한 믿음만으로 원죄라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신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이 원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05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처럼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영원법으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도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종족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성은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자연적 성향이라고 보았다.

06 아퀴나스의 입장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듯 실정법도 자연법에 기초해야 하며, 자연법에 근거하여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만이 정의로운 법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해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③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의 법칙인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07 루터의 종교 개혁 답 ③

제시된 대화의 사상가는 루터이다. 루터는 참된 진리와 구원의 근거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⑤ 루터는 교회라는 중재자가 없어도 신자 개개인이 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루터는 세속적인 노동도 신의 부르심으로 강조하면서 직업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④ 루터는 누구나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하였다.

08 칼뱅의 종교 개혁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은 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신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직업 활동은 세속 영역으로, 종교적 가치와 무관하다.
  → 칼뱅은 직업이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통로라고 보았다.
- 직업은 신의 뜻과 무관하게 사회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다.
  → 칼뱅은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보았다.

09 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주요 키워드〕 불완전성, 선의 결핍, 자유 의지

채점 기준	배점
악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악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0 진정한 행복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

〔주요 키워드〕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신학적 덕

채점 기준	배점
아퀴나스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덕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아퀴나스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덕 중 일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11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주요 키워드〕 노동, 직업, 자본주의

채점 기준	배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미친 영향 두 가지를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미친 영향 두 가지를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미친 영향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79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1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의 '어느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강조한 사주덕(절제, 용기, 정의, 지혜)을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과 은총이 있어야 정의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존재의 불완전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선이 결핍된 존재가 된다(ㄱ).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생겨난 선의 결핍은 자연적 악이 아닌 도덕적 악이다(ㄹ).

바로잡기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악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 용기, 정의, 지혜를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고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예'가 되어야 한다.

02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답 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관조를 통해 신과 하나될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자유 의지에 의해 악이 비롯되므로 도덕적 악의 원인은 신에게 있지 않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이성과 철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인간이 영원법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03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윤리 사상

답 ③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모두 신은 실재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없으므로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ㄹ. C: 신의 존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04 루터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터이다.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신앙적·도덕적 타락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루터는 구원의 근거가 성서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③, ④ 루터는 교회라는 중재자 없이도 신자 개개인이 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누구나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하였다. ⑤ 루터는 구원은 면죄부가 아닌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04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82쪽

01 × 02 ○ 03 × 04 ㉠ 05 ㉡ 06 의무
07 조건부 08 고통 09 결과론 10 규칙 11 정언 명령
12 목적 13 공리

01 칸트는 인간이 감성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지계에 속해 있다고 보았다.

03 밀은 쾌락 간 질적인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82~84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7 ⑤ 08 ②

서답형 문제

09 모범 답안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보았고,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10 모범 답안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는 동일하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11 모범 답안 (가)는 벤담, (나)는 밀로, 모두 고전적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도덕 판단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01 칸트의 입장 답 ③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아닌,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한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칸트는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ㄹ.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02 칸트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개인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다면 그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인간이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칸트에 따르면 모든 시대나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 ⑤ 칸트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03 칸트의 보편 법칙의 정식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없으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칸트는 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A에게 조언할 것이다.

바로잡기 ② 공리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③ 칸트는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⑤ 칸트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행위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없으므로, 칸트는 선한 의도로 거짓말하는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04 로스의 조건부 의무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스이다. 로스에 따르면 약속 이행의 의무, 선행의 의무와 같은 조건부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직관에 의해 더 우선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바로잡기 ①, ④ 로스는 약속 이행의 의무, 선행의 의무와 같은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 때 실제적 의무가 된다고 보았다. ② 로스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05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ㄴ. 다른 쾌락보다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밀의 입장이다. 벤담은 쾌락 간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ㄷ.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
→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06 벤담의 윤리 사상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쾌락을 증대하는 행위는 옳지만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공리의 원리가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가장 큰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④ 벤담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쾌락이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07 밀의 질적 공리주의 답 ⑤

제시된 그림의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밀은 동물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는 저급한 쾌락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고상한 쾌락을 구분하였다. 밀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도 고상한 쾌락에 포함된다고 보고, 타인의 행복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타심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⑤ 밀은 쾌락을 평가할 때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밀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인간이 타인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회적 감정이 있으며, 사회적 감정처럼 공통된 감정에 근거하여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밀에 따르면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 등 여러 쾌락을 경험해 본 전문가가 선호하는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바로잡기 ㄴ. 밀은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이 행위 자체의 도덕성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ㄷ.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09 칸트의 선의지

〔주요 키워드〕 선의지, 경향성

채점 기준	배점
칸트가 도덕적인 행위로 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로 본 것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칸트가 도덕적인 행위로 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로 본 것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칸트가 도덕적인 행위로 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로 본 것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0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한 벤담의 관점

〔주요 키워드〕 동일, 차이

채점 기준	배점
벤담의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벤담의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한 관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1 고전적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주요 키워드〕 공리의 원리, 실천 지침, 소수의 권리, 계산

채점 기준	배점
고전적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고전적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고전적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85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①

01 로스와 칸트의 입장 답 ①

갑은 로스, 을은 칸트이다. 로스는 의무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의무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로스에 따르면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변하면 조건부 의무 간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칸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준칙만이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비록 나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⑤ 로스의 입장만 해당한다.

02 벤담과 밀의 입장 답 ④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보았다.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며 이를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밀은 쾌락들 간의 질적 차이는 쾌락의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으며, 쾌락의 전문가가 다수인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쾌락의 질적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밀은 동물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는 쾌락을 저급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보충 + 심화 밀의 쾌락의 구분

저급한 쾌락	• 동물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는 쾌락 • 먹는 것, 성(性), 휴식 등을 통한 쾌락
고상한 쾌락	•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쾌락 • 지성, 상상력, 도덕적 정서 등을 통한 쾌락

03 칸트와 밀의 입장 답 ⑤

갑은 칸트, 을은 밀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의 의지와 동기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였고, 밀은 행위의 결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밀은 칸트에게 의지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행위로 산출되는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A: 존경심, 동정심 등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③ A: 일반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칸트는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④ B: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다.
→ 칸트는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04 벤담과 칸트의 입장 답 ①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에 따르면 의지의 선함과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다면 도덕적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칸트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도덕 법칙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제시하였다.

선택지 분석

ㄴ. B: 모든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C

ㄹ. C: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과 관련이 없다.
→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였다.

자료 분석

갑: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이다. 행복의 양은 일곱 가지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 벤담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기준으로 쾌락을 계산하여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05 윤리적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88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주체적 08 변화 가능하다 09 비대칭성 10 진화 심리학
11 의무론적 12 자연으로 13 직관 14 상상력

03 배려 윤리는 여성의 도덕적 성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중시한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88~92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① 08 ④ 0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③

서답형 문제

17 모범 답안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모범 답안 (가)는 신경 과학적 관점, (나)는 진화적 관점이다. 신경 과학적 설명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도덕적 인간의 모습을 확인해 준다. 진화적 설명은 도덕의 공통 토대와 도덕규범의 상대성의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19** 모범 답안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인 우리가 개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권력과 정치적 행위의 주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01 키르케고르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미적 실존 단계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을 느낌으로써 주체적 결단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미적 실존 단계에서는 미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허무함, 절망을 느끼게 된다.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선한 삶을 추구하나 자신이 도덕 법칙을 완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

바로잡기 ㄴ.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한다고 보았다. ㄷ.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02 사르트르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선험적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체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②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떤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③ 플라톤의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초월적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미리 결정된 본질은 없다고 보았다. ⑤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였다.

03 실존주의 윤리 사상 답 ⑤

㉠에 들어갈 말은 '이성주의', ㉡에 들어갈 인물은 키르케고르, ㉢에 들어갈 인물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이다.

바로잡기 ㄱ. 실존주의는 근대 이성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04 실용주의의 격률 답 ①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퍼스는 관념적 추론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으려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실용주의의 격률을 제시하였다.

05 제임스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삶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임스에 따르면 지식과 신념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 현금 가치를 지녀야 한다. 제임스의 현금 가치는 생활에 쓸모 있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택지 분석

ㄱ. 진리는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 제임스는 진리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ㄷ.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이다.
→ 칸트의 입장이다.

06 듀이의 입장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듀이에 따르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② 듀이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사회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⑤ 듀이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라고 보았다.

07 도덕에 관한 과학적 설명 답 ①

도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에는 진화적 관점과 신경 과학적 관점이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는 도덕 판단이 생물학적 원인의 산물이라고 본다. 도덕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도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선택지 분석

- 어떤 도덕 이론이 더 바람직한지 말해 준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 도덕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어떤 도덕 이론이 더 바람직한지는 말해 주지 못한다.
- 신경 과학적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하는 인물로는 하이트, 사르트르 등이 있습니다. → 다마지오, 그린

08 신경 과학적 관점

답 ④

그린은 도덕 판단의 '이중 처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사고와 정서적 반응이라는 두 개의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고 능력은 공리주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적 반응은 의무론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지 분석

- 사고 능력이 종교적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 공리주의적 판단

09 하이트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트이다. 하이트는 선천적으로 갖게 된 직관과 후천적인 사회적 학습의 조합으로 도덕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대부분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하이트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대부분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ㄷ. 하이트는 도덕적 추론은 이미 내려진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 위해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10 진화 심리학

답 ②

㉠에 들어갈 말은 '진화 심리학'이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 심리와 행동을 진화론적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진화 심리학은 사회적 동물들의 이타성, 호혜성, 감정 이입, 공감, 협력 등을 도덕의 기초로 본다.

선택지 분석

ㄱ. ㉠에 들어갈 말은 '신경 과학'이다. → 진화 심리학

ㄴ. ㉠은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 감정과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 감정과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도덕을 신경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마지오이다.

ㄷ. ㉠은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신경 과학적 관점이다.

11 요나스의 책임 윤리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차원의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책임을 중시한다.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를 개인뿐만 아니라 권력과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까지 확장하였으며, 윤리의 대상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함으로써 현대 윤리학의 생태학적 전환에 기여하였다.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다. 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현세대에게 미래 세대가 지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12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 명령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존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일방적인 책임을 지닌다고 보면서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요나스는 A에게 화학 산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잡기 ① 스토아학파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② 공리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③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 따르면 현세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⑤ 실용주의를 주장한 퍼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13 레비나스의 책임 윤리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비나스이다. 레비나스는 자아는 타자의 윤리적 요청에 응답하고 타자를 환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레비나스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비대칭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②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유한 속성은 내가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레비나스에 따르면 자아는 타자를 환대할 책임이 있다. ⑤ 레비나스는 타자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의미의 악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14 레비나스의 입장

답 ③

㉠에 들어갈 인물은 레비나스이다. 레비나스는 책임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아가 타자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에 들어갈 인물은 요나스이다. → 레비나스

ㄷ. ㉠은 타자성이 자아의 이성을 통해 완전히 파악되고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고유한 속성인 타자성은 자아인 내가 완전하게 인식하거나 나에게로 통합할 수 없는 고유하고 무한한 것이다.

15 길리건의 배려 윤리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여성의 도덕적 성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①, ③ 길리건에 따르면 배려는 상호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려 윤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 중심적 윤리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길리건은 배려·책임·관계와 같은 도덕적 지향이 윤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자료 분석

도덕 문제들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배려 윤리의 발달을 추적하면서, 나는 폭력적이지 않은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이 관계적인 윤리는 예로부터 도덕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선다.

→ 길리건은 남성과 여성이 도덕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 중심적 윤리 이론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정의와 규칙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배려, 책임, 관계 등 여성의 도덕적 특성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16 배려 윤리 답 ③

배려 윤리는 관계의 윤리이고 상황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배려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과 추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과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바로잡기 ① 행위 결과의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관점이다. ② 배려 윤리는 공정성과 형식적 평등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공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배려 윤리에서 타자의 요구는 단순한 참고 요소가 아니라 판단의 핵심 근거이다. 배려자의 독단적인 이성적 숙고만으로는 진정한 배려가 성립하기 어렵다. ⑤ 배려 윤리는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배려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키르케고르의 윤리 사상

〔주요 키워드〕 주체적 결단, 신 앞에 선 단독자, 참된 실존

채점 기준	배점
키르케고르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키르케고르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 신경 과학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

〔주요 키워드〕 감정, 이성, 도덕의 공통 토대, 도덕규범의 상대성

채점 기준	배점
신경 과학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의의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신경 과학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의의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신경 과학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의의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9 요나스의 책임 윤리

〔주요 키워드〕 개인, 권력과 정치적 행위의 주체

채점 기준	배점
요나스가 생각한 책임의 주체인 우리의 범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요나스가 생각한 책임의 주체인 우리의 범위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93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1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입장 답 ④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모두 인간이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이며,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인간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택지 분석

ㄱ. A: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 종교적

ㄷ. C: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B

02 사르트르와 듀이의 입장 답 ①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세계 안의 존재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사르트르는 신은 없으며 인간이 먼저 실존한 후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③ 듀이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때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④ 듀이는 절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자료 분석

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03 다마지오와 그린의 입장 답 ⑤

갑은 다마지오, 을은 그린이다. 다마지오는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 감정과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린은 사고 능력이 공리주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적 반응이 의무론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도덕에 관해 신경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예 / 예) 다마지오와 그린 모두 신경 과학적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하고자 했다.

ㄴ. A: 도덕적 판단은 오직 단일한 이성적 사고 과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 (아니요 / 아니요) 다마지오는 도덕적 판단 시 감정과 직관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린은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도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04 나딩스의 배려 윤리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따르면 배려하는 사람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여러 행동을 상상하여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잡기 ① 배려 윤리에 따르면 배려는 고정된 규칙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배려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 배려 윤리에 따르면 배려는 타인에 대한 인간적 애정과 관심에 의한 것이다. ③ 배려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고 배려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④ 배려 윤리는 기존의 정의 중심적 윤리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94~99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①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③	22 ④		

서답형 문제

23 모범 답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앎이 있더라도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24** 모범 답안 ㉠은 에피쿠로스, ㉡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와 벤담 모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다. **25** 모범 답안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모두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르트르는 신이 없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01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감각적 경험과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인 사유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와 성공을 중시하였던 소피스트들과 달리 성찰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였다.

02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답 ②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피스트들은 유용성을 근거로 진리를 평가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것이 곧 진리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온다는 것을 간과한다.
→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이 참된 앎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③ B: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A
④ B: 이성적 탐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임을 간과한다.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모두 인간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탐구하였다.
⑤ B: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소피스트들은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인 수사학을 중시하였다.

03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과 이성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은 행복이고, ㉡은 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는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성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의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다. ③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이 탁월하게 활동할 때 지적인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 답 ①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영원불변하는 이데아가 현실 세계 밖의 이데아계에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중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간으로서 품성적인 덕에 속한다.

05 에피쿠로스의 소극적 쾌락주의 답 ①

제시된 그림의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욕구를 분별하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자연과 사물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에피쿠로스는 본성적(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ㄹ.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추구하였다.

06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의 윤리 사상 답 ②

갑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죽었을 때는 죽음의 고통 자체를 느낄 방법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죽음과 같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④, 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가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③ 플라톤의 입장이다.

07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입장 답 ③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본성적이고 필수적인 욕망만 고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덕은 쾌락을 줄 때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세계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에 참여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예)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C: 이성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가?
→ 스토아학파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스토아학파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성적 태도를

바탕으로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금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주체적 판단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 스토아학파는 이성의 운명을 받아들여 부동심을 유지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소규모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09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입장 답 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각 부분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소멸한 상태에 도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플라톤에게 행복은 영혼의 조화가 아닌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② 에피쿠로스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③, ④ 에피쿠로스는 국가나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개인의 평화를 우선하였다.

10 아우렐리우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답 ⑤

갑은 스토아학파인 아우렐리우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이 우주 자연의 원리이자 이성의 법칙이라고 보았고,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② 스토아학파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이성과 철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증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 원리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11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답 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민으로 삼았다는 선민사상을 주장한다(가). 십계명은 인간 사이의 올바른 태도를 규정하며 타인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할 것을 명령한다(나). 예수는 율법의 외형적인 측면보다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법을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바꾸었다(라).

12 종교 개혁 답 ③

교황의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의 도덕적 부패 등이 원인이 되어 종교 개혁이 발생하였다. 루터는 교회 없이도 신자 개개인이 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칼뱅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칼뱅은 구원은 인간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 루터와 달리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 루터와 칼뱅 모두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보았다.

13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입장 답 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한 것에 영향을 받아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였다.

바로잡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감각적인 현상에 근거한 불완전한 지식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모습인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은 영혼의 각 부분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자료 분석

갑: 지상의 국가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으며 천상의 국가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 전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후자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을: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 플라톤이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보았다.

14 규칙 공리주의 답 ②

제시된 내용에서 설명하는 관점은 규칙 공리주의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과거 경험에서 공리가 이미 입증된 규칙에 의존하므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높고, 효율적이며 대체로 도덕적 상식과 일치한다.

선택지 분석

- 규칙들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하지 못합니다.
- 이 관점은 대안적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다고 봅니다. →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15 의무론과 공리주의 답 ⑤

갑은 벤담, 을은 밀, 병은 칸트이다. 벤담은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칸트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① A: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
→ 밀은 쾌락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B: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이 별개임을 강조한다.
→ 벤담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③ C, E: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벤담과 밀 모두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D: 쾌락 추구가 개인의 준칙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칸트에 따르면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로, 쾌락 추구도 개인의 준칙이 될 수 있다.

16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입장 답 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에 비해 벤담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정도(X축)와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Y축)는 높고, 개인의 내적 평온을 도덕의 목적으로 삼는 정도(Z축)는 낮다.

17 선호 공리주의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면 그들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일부 동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바로잡기 ㄷ. 칸트의 입장이다. ㄹ.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있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8 키르케고르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③ 키르케고르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공리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⑤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보충+심화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

미적 실존 단계	• 감각적 쾌락 추구 • 쾌락을 추구하다가 허망함을 느끼고 절망에 빠짐
윤리적 실존 단계	• 보편적 윤리 추구 • 자신이 도덕 법칙을 완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짐
종교적 실존 단계	•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 추구 •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함

19 사르트르의 윤리 사상 답 ⑤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주체적 결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초월적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미리 결정된 본질은 없다고 보았다. ④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20 제임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답 ①

갑은 실용주의를 주장한 제임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제임스는 진리는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대나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임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소크라테스가 제임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 제임스의 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⑤ 제임스를 비롯한 실용주의 입장에 따르면 지식이나 가치는 유용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과 도덕도 새롭게 정의되고 발전해야 한다.

21 신경 과학적 관점 답 ③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의사 결정을 설명하려는 관점은 신경 과학적 관점이다. ③ 하이트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대부분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덕적 추론은 이미 내려진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 위해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22 배려 윤리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나딩스로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배려 윤리는 기존의 정의 중심적 윤리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배려 윤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배려는 상호 의존성과 관계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ㄱ. 배려 윤리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배려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과 추론이 필요하다. ㄹ. 배려 윤리에 따르면 판단과 추론의 기준과 핵심은 배려를 받는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과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23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성적인 덕

〔주요 키워드〕 도덕적 행동, 습관

채점 기준	배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4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입장

〔주요 키워드〕 에피쿠로스, 벤담, 쾌락, 고통

채점 기준	배점
㉠이 에피쿠로스, ㉡이 벤담임을 쓰고,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견해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이 에피쿠로스, ㉡이 벤담임을 썼으나,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견해의 공통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이 에피쿠로스, ㉡이 벤담임을 쓰지 못하고,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견해의 공통점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5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주요 키워드〕 불안, 신, 단독자

채점 기준	배점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Ⅳ 사회사상

01 국가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0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법과 술수 08 사유 재산 09 소멸
10 철학자가 11 늘어나게 12 저항권 13 원초적 14 불평등

01 공자는 법과 처벌로 백성을 통제하는 정치가 아닌 도덕과 예절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04~108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⑤ 16 ②

서답형 문제

17 (1) 맹자 (2) 모범 답안 맹자는 군주가 덕을 잃어 군주답지 못하다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18 (1) 모범 답안 갑은 로크, 을은 홉스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았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2) 모범 답안 로크와 홉스 모두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01 공자의 국가관 답 ④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며 유능한 사람이 중용되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공자는 효제(孝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공자가 제시한 대동 사회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도덕 공동체이다. ③ 공자는 국가를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보았다. ⑤ 공자는 법이나 처벌보다 도덕과 예절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추구하였다.

02 맹자의 국가관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을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은 군주에게 내려진 하늘의 명이므로 군주가 백성과 함께 즐거움과 근심을 나누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만일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군주답지 못하다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맹자에 따르면 일반 백성과 달리 선비는 고정적인 생업 없이도 도덕적 마음을 지닐 수 있다.

03 순자의 국가관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유가 사상가인 순자이다. 순자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민의가 반영된 정치를 구현할 것을 강조하는 민본주의를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① 유가에서는 군주가 백성의 뜻을 이해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는 민본주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②, ⑤ 유가에서는 권세나 무력으로 정치하거나 백성을 통제하기보다는 도덕과 예절로써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중시한다. ④ 민본주의는 백성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04 공자와 노자의 국가관 답 ④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에서는 인(仁)을 통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며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노자를 비롯한 도가에서는 시비(是非)와 존비친소를 구분하는 유가의 인과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 백성의 순박한 마음과 자연스러운 마음을 해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공자가 노자에게 제기할 비판이다. 도가에서는 인과 같은 인위적 제도와 규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③ 공자는 군주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다. ⑤ 도가에서는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정치가 백성의 순박한 마음을 해친다고 본다.

05 노자의 국가관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인 무위지치(無爲之治)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에 따르면 무위지치는 백성들이 사물들을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어느 한쪽만을 바라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현된다.

바로잡기 ㄴ. 노자는 소박함을 지향하고 인위적인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ㄷ. 법가에서 주장할 내용이다. 노자에 따르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자연스러운 삶을 해치기 때문이다.

06 한비자의 국가관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한비자이다. 한비자는 형법에 의한 통치와 부하를 거느리는 술수를 중시하였고, 과오에 대해 엄중히 벌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신하와 백성을 통제하면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한다.
  → 한비자는 군주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 신하와 백성을 통제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군주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 한비자는 백성들이 일시적인 이익에 급급하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는 나라의 어려움을 키우게 된다고 보았다.

07 동양의 국가관

답 ④

노자는 무위자연을 구현하는 정치인 무위지치를 강조하였고, 유가에서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백성과 함께 즐거움과 근심을 나누는 위민 정치(爲民政治)를 중시하였다.

선택지 분석

- 맹자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비판하며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중시하였습니다. → 맹자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중시하였다.
-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면서 민본주의 정치를 부정하였습니다.
  →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지만, 유가 사상가로서 민본주의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08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정이 구성된 뒤 마을이 구성되고, 그 후 국가가 구성된다. 이때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들의 훌륭한 삶을 위한 최선의 도덕 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존재이며,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 자아를 실현하며 최고선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09 홉스의 국가관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각 개인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통치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출현한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개인에게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공적 인격체인 리바이어던은 시민들이 사회 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

바로잡기 ㄴ. 루소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ㄷ.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절대 권력을 지니지만, 자연권인 자기 보존의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하는 리바이어던은 그 존립 근거를 잃는다고 보았다.

10 플라톤의 국가관

답 ⑤

제시된 그림의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자질에 따라 사회적 직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통치자로서,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방위자로서, 절제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생산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②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참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염려하였다. ④ 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각 계층이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로크의 국가관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자연권을 지니지만,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로크는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시민이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루소의 국가관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에 따라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고,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얻는 자유는 일반 의지와 법에 근거한 자유라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에 의해 주권이 성립되며, 일반 의지는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바로잡기 ② 루소는 일반 의지가 투표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공동의 이익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③ 홉스의 입장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았다. ④ 루소는 주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루소는 각 개인이 사유 재산으로 인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13 마르크스와 헤겔의 국가관

답 ⑤

㉠은 마르크스, ㉡은 헤겔이다. 마르크스는 노동 계급의 투쟁에 의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계급 갈등이 사라지고 사유 재산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헤겔은 국가가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토대이자 인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았다. ⑤ 헤겔은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이 될 때 그 자신의 인륜성을 지닐 수 있고 참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플라톤과 공화주의의 국가관

답 ①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플라톤의 국가관에 동의하는 갑은 국가 통치자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다. 공화주의에서는 법치를 위해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시민들에 의한 자치를 중시하므로, 공화주의의 국가관에 동의하는 을은 시민들에 의한 자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바로잡기 ㄷ. 공화주의에서는 국민들이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을은 국민들이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다. ㄹ. 공화주의에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중시하였지만 플라톤은 참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중의 정치 참여를 염려하였다. 따라서 을만 국민의 정치 참여를 중시할 것이다.

15 롤스의 절차적 정의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하였고, 배분 시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누구나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원을 배분하는 절차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대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이 최대화되는 결과보다는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추구하였다. ㄴ.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은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지능, 체력,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 등을 알 수 없는 가상적 상황이다.

16 오늘날 국가의 역할

답 ②

오늘날의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제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오늘날의 국가는 소극적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 맹자의 역성혁명

(2) [주요 키워드] 군주, 덕, 역성혁명

채점 기준	배점
맹자가 주장한 역성혁명의 조건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맹자가 주장한 역성혁명의 조건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 로크와 홉스의 국가관

(1) [주요 키워드] 자연 상태, 평화, 투쟁

채점 기준	배점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와 홉스 입장의 차이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와 홉스 입장의 차이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자연 상태, 보호, 사회 계약

채점 기준	배점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로크와 홉스 입장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로크와 홉스 입장의 공통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보충 + 심화 **로크의 관점에서 본 자연 상태의 한계**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동의에 따라 확립된 법률, 공평한 재판관, 판결을 집행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보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등급 UP 고난도 문제

109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④

01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답 ④

갑은 홉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홉스는 자기 보존의 권리는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연권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국가는 인간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가?
→ (아니요 / 예) 홉스는 국가가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ㄷ. C: 공동선의 실현은 국가의 목적이 되지 않는가?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공동선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최선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02 노자와 공자의 국가관

답 ①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에 비해 공자는 시비 분별을 피하려는 정도(X축)는 낮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Y축)와 존비친소의 구분을 중시하는 정도(Z축)는 높다.

03 한비자와 맹자의 국가관

답 ①

갑은 한비자, 을은 맹자이다. 한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는 나라의 어려움을 키운다고 보았으므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강조하는 맹자에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맹자는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중시하였으므로, 형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백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 한비자에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ㄴ. A: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을 간과한다.
→ 한비자와 맹자 모두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다.

ㄹ. B: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에 의한 정치가 백성의 마음을 해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도가에서 한비자에게 비판할 내용이다. 맹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에 의한 정치가 백성의 마음을 해친다고 보지 않았다.

04 마르크스와 루소의 국가관

답 ④

갑은 마르크스, 을은 루소이다.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출현하였으며, 공산 사회가 도래하면 국가는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았다. 루소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가 출현하였으며 일반 의지에 의해 주권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④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이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면서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공산 사회를 지향하였다. 루소도 사유 재산이 개인을 경제적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한다고 보았다.

02 시민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12쪽

01 × 02 ○ 03 × 04 ㉠ 05 ㉡
06 소극적 07 공동선 08 공화주의 09 법의 지배
10 일반 의지 11 사유 재산권 12 시민적 자유
13 관용의 역설

01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03 공화주의에서는 비지배의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화국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12~114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④ 08 ③

서답형 문제

09 모범 답안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자유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본다. 10 모범 답안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사회가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본다. 11 모범 답안 공화주의는 특정 개인에 의한 지배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화국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01 시민에 대한 자유주의의 입장 답 ④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시민을 개인으로서 시민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정치 사회의 근원으로 본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시민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지 감시해야 하며, 기업과 언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 분석

- 시민은 국가 정책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유주의에서는 시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국가를 감시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02 근대 자유주의의 관점 답 ①

근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근대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선택지 분석

-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삶의 모습이나 가치를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삶의 모습이나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 법과 공권력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적극 개입하는 적극적 국가관을 지향하였습니다.
  → 자유주의에서는 법과 공권력을 통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극적 국가관을 주장한다.

03 권리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답 ①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일정한 권리를 생득적으로 지닌다고 보았다. 특히 로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산물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강조하였고, 자연 상태의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자연권을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 보았다. ① 홉스는 국가가 없고 통용되는 도덕규범이 부재한 자연 상태일지라도 인간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생득적으로 지닌다고 보았다.

04 관용의 역설 답 ④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모습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관용으로 인해 기본적 권리, 인권,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는 관용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용의 범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까지임을 인지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관용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③, ⑤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의견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05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특징 답 ⑤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반면 공화주의는 공화국이 존재해야 인간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⑤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공동선을 배척하지 않고 공화주의가 개인선과 모순을 이루지 않으므로 두 입장은 양립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

06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답 ④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중시한다. 반면 공화주의는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넘어 누군가의 자의 및 지배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의 지속을 중시한다. 또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지만, 공화주의에서는 자유가 법과 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잡기 ㄱ.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ㄷ. 자유주의 입장에서 공화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07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 답 ④

공동선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은 자기 공화국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동선과 법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알고 공적인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④ 시민들은 국가의 권위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고 억압자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

08 공화주의의 애국심 답 ③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시민의 비지배적 자유를 지켜 주는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 시민다운 생활 방식, 시민 동료를 향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다. 또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온 시민들과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인위적 감정이다.

바로잡기 ㄱ.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선천적 감정이 아닌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이다. ㄹ.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시민이 자신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게 갖는 사랑이다.

보충+심화 **자유주의의 애국심과 공화주의의 애국심 비교**

자유주의의 애국심	•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존중이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에 헌신하려는 마음 • 자유주의는 헌법을 존중하는 애국심을 강조하므로 자유주의를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일컬음
공화주의의 애국심	• 시민의 비지배적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자발적 사랑 • 자유를 수호해 온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생김 • 민족주의적 애국심, 헌법 애국주의의 애국심과 구분됨

09 소극적 자유

〔주요 키워드〕 소극적 자유, 외부, 압력, 강제

채점 기준	배점
소극적 자유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소극적 자유의 의미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0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주요 키워드〕 자유, 침해, 사회

채점 기준	배점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1 공화주의의 공동선을 위한 법

〔주요 키워드〕 자의적, 공동선

채점 기준	배점
공화주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공화주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공화주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15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③

01 벌린의 자유주의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벌린이다.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벌린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수록 자유가 커진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인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②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증대하기 위해 법의 간섭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④ 벌린은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자유가 커진다고 보았지만 개인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⑤ 공화주의에서 긍정할 내용이다.

02 루소의 공화주의 답 ②

제시문의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에 따르면 공화국의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인 일반 의지에 따른 법만이 정당하다.

바로잡기 ① 루소는 완전한 입법에 있어 개별적 또는 개인적 의지는 전혀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⑤ 루소는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④ 루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03 벌린과 페팃의 입장 답 ①

갑은 벌린, 을은 페팃이다. 벌린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인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ㄷ. B: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가? → C

ㄹ. C: 법의 지배로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 페팃을 비롯한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04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답 ③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이다. 자유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정도(X축)와 개인의 정치 참여 의무와 유대 의식을 강조하는 정도(Z축)는 높고,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낮다.

보충+심화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자유주의는 공동선을 개인선의 총합으로 본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공동선이 개인선의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라고 본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이 개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된다고 보며, 자신의 개인선뿐만 아니라 타인이 추구하는 개인선의 가치도 존중하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03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18쪽

01 ○ 02 ○ 03 × 04 ㉡ 05 ㉠ 06 양심
07 양적 08 공공의 이익 09 직접 민주주의
10 심의 민주주의 11 법치주의 12 시민 불복종

03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18~120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① 08 ④

서답형 문제

09 (1) 모범 답안 로크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정부에 위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
(2) 모범 답안 로크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모범 답안 밀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에만 국가에 의한 사회·정치적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모범 답안 시민 불복종은 공적 이익에 입각한 정치적 안목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01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답 ③

제시된 내용에서 설명하는 정치 체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추첨제와 윤번제 등을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았다.

바로잡기 ㄱ.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다. ㄷ. 아테네에서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02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답 ②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로크가 강조한 저항권과 법치주의 및 권력 분립을 사상적 토대로 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며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사회 계약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선택지 분석

-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절대 왕정을 강화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 타도
- 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최소화

03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특징 답 ③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자기 지배를 실현하는 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추구한다. 또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제도에 따라 권력이 집중·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참정권 확대와 보통 선거 제도 도입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③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04 대의 민주주의 답 ⑤

㉠은 대의 민주주의이다. 현대에는 인구 증가 및 산업화로 사회가 복잡해져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소수 대표자에 의해 정치가 행해지므로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할 수 있으며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선거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는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⑤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의 도덕성이나 통치 능력이 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므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05 심의 민주주의 답 ②

제시된 그림에서 주장하는 사회사상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공론의 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지녀야 한다.

바로잡기 ①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선호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③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심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④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민 참여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⑤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면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적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06 참여 민주주의 답 ④

시민의 정치 참여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익 집단의 목소리와 자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07 시민 불복종 답 ①

㉠은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실정법에 대한 위반이 전제되므로 신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선택지 분석

-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
  →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롤스는 ㉠이 양심에 근거해야만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롤스는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이더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08 민주주의의 이상 구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 답 ④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은 서로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도덕적 자율성과 공적 이성에 입각해 공론의 장에 임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연대 의식을 지녀야 한다.

바로잡기 ㄷ. 시민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결정을 준수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9 권력에 대한 로크의 입장

(1) 〔주요 키워드〕 국민, 의사, 권력

채점 기준	배점
로크의 입장에서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로크의 입장에서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입법권, 집행권, 분리

채점 기준	배점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는 로크의 견해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는 로크의 견해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0 밀의 자유론

〔주요 키워드〕 자유, 타인, 위해

채점 기준	배점
밀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밀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1 시민 불복종의 특징

〔주요 키워드〕 공적 이익, 공개적, 처벌

채점 기준	배점
시민 불복종의 특징 세 가지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시민 불복종의 특징을 두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시민 불복종의 특징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21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②

01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답 ①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해 토론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바로잡기 ㄷ.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민 과잉 참여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참여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ㄹ.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두 시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02 심의 민주주의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로,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인 심의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토론과 숙고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잡기 ②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모여 심의를 진행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④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심의가 왜곡될 수 있다. ⑤ 심의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는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03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답 ⑤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공적인 정의관을 바탕으로 공적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적인 정의관인가?
→ (아니요 / 예) 소로는 양심에 의한 판단을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내세웠고, 롤스는 공적 정의관을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보았다.

ㄴ. A: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제도 또는 정책이 정의롭지 못할 때 이를 변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소로와 롤스 모두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04 민주주의의 특징 답 ②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로, 피치자의 동의에 기반해 정부가 운영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소수의 의견을 전달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ㄴ.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그 집단이 운영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ㄷ.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제도를 통한 권력의 상호 견제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04 자본주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2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최소화 08 프롤레타리아 09 공자 10 시장 실패
11 사유 재산 12 예정설 13 민주 사회주의

02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지하였다.

03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말한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24~128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② 09 ⑤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④

서답형 문제

17 (1) 갑: 고전적 자본주의, 을: 수정 자본주의 (2) 모범 답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이나 빈부 격차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완전 고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 **18** (1) 인간 소외 현상 (2) 모범 답안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공장의 기계 설비를 확충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이 과정에서 도입된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켰다.

01 칼뱅의 직업 소명설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은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직업적 성공과 구원은 무관하다고 보았다.
→ 칼뱅은 예정설을 통해 직업적 성공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ㄹ. 부의 축적을 본질적으로 죄악시하고 청빈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 칼뱅의 직업 소명설에 의해 부의 축적이 권장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02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입장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공유재에 자신의 노동을 부가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 자본주의의 특징 답 ②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윤 추구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개인의 의사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선택지 분석

-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은 언제나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단순한 도구적 가치를 넘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차별화됩니다.
→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그 강조점이 같다.

04 스미스의 입장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이 국방과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각 개인에게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사회주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⑤ 스미스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5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 각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므로 각 개인에게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③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레 공익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②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긍정하였다. ⑤ 스미스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심을 발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자료 분석

사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한다.

➔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익 추구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은 죄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06 자본주의의 기여와 한계 답 ③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선거 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정착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과정에서 경제적 이기주의가 확산되었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었

다. ③ 경제적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결여한 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경제적 이기주의가 확산되었다.

07 공자의 대동 사회 답 ①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다.

선택지 분석

② 허정(虛靜)의 수양법을 통해 욕망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 노자의 입장이다.

③ 모두가 똑같은 양의 재화를 나누어 갖는 경제적 평등 사회를 지향하였다.
→ 대동 사회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보다는 약자를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 항심(恒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산(恒産)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맹자의 입장이다.

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자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08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민간 부문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 체계와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가정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공공 지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ㄴ. 공공 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은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ㄷ. 케인스는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답 ⑤

㉠에 들어갈 말은 '고전적 자본주의', ㉡에 들어갈 말은 '수정 자본주의', ㉢에 들어갈 말은 '신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고, 수정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10 자본주의의 특징 답 ②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 실패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 무능과 부패로 이어져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장 경제 원리 강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추진되면서 빈부 격차 확대,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잡기 ㄴ. 수정 자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및 공공사업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ㄷ.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수정 자본주의이다.

보충 ✪ 심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고전적 자본주의	• 대표 사상가: 스미스 •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주장 •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한다고 봄
수정 자본주의	• 대표 사상가: 케인스 •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봄 • 정부가 나서서 복지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완전 고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봄
신자유주의	• 대표 사상가: 하이에크 •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봄 •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축소,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

11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답 ②

제시된 내용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주장할 내용이다.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정부가 시장을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적으로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③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및 완전 고용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주장한다. ④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의회 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⑤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사적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2 맹자의 왕도 정치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이 항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항산을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길러 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맹자는 항산이 왕도 정치의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ㄹ. 맹자는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13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답 ④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공공사업이나 사회 복지 정책 확대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인정하였다.

선택지 분석

ㄱ. A: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 하이에크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에 반대하였다.

ㄷ. B: 정부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C

14 마르크스의 입장

답 ③

제시된 그림의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분업화된 노동을 통해 생산력이 향상되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필연적으로 공산주의가 도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면 생산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평등과 필요에 의한 분배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보았다.

15 신자유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답 ③

(가)는 신자유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므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강조한다. 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 확대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을 반대하지만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지한다.

16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답 ④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이윤 추구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로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④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17 고전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2) [주요 키워드] 정부, 자유방임, 완전 고용

채점 기준	배점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고전적 자본주의 입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고전적 자본주의 입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고전적 자본주의 입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8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2) [주요 키워드] 대량 생산, 분업화, 인간 소외 현상

채점 기준	배점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29쪽

01 ⑤ 02 ④ 03 ⑤

01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의 입장

답 ⑤

갑은 스미스, 을은 마르크스, 병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공공사업이나 복지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스미스에게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스미스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② B: 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능력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C: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 E

④ D, F: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가 불평등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B, D

02 사회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답 ④

갑은 사회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 입장이다.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계급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마르크스에 대해 민주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억압받고 있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았다. ③ 마르크스는 경제적 평등과 필요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⑤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적으로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보충+심화 사회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
민주 사회주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것을 주장

03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답 ⑤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에 비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정도(X축)와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높고,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Z축)는 낮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130~135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①	08 ④	09 ②	10 ⑤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②	16 ①	17 ④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⑤		

서답형 문제

23 모범 답안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개인은 사유 재산으로 인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24 모범 답안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은 시민의 비지배적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다. 또한 애국심은 시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그 기억의 공유로부터 생겨나는 인위적 감정이다. **25** 모범 답안 ㉠은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인 반면, ㉡은 대의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01 맹자의 국가관 답 ⑤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일반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 없이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없지만 선비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어도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맹자는 패도 정치가 아닌 왕도 정치를 중시하였다. ② 맹자는 법보다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④ 맹자에 따르면 군주가 덕을 잃어 군주답지 못할 때 천명에 따라 군주를 바꿀 수 있는 역성혁명이 허용된다.

02 한비자의 국가관 답 ②

제시된 내용의 '어느 사상가'는 한비자이다. 한비자는 엄격한 상벌 제도를 통해 신하와 백성을 통제하는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ㄱ). 국가가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토대이자 인륜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한비자가 아닌 헤겔이다(ㄷ).

바로잡기 ㄴ.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치를 행해야 한다고 본 것은 공화주의이므로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ㄹ. 한비자는 군주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읽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예'가 되어야 한다.

03 노자의 국가관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백성이 적고 규모가 작은 사회인 소국과민을 이상적으로 보았고, 백성의 순박한 마음과 자연스러운 삶을 해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은 백성이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을 해친다고 보았다.
- 효제(孝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실현해야 한다. → 노자는 무위지치를 중시하였지만 효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04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답 ①

갑은 로크,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로크는 국가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하거나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다.

05 루소와 홉스의 국가관 답 ②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에 의해 주권이 성립된다고 보았고, 홉스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공적 인격체인 리바이어던이 시민들에게 사회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ㄴ. B: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 → A
ㄷ. C: 국가는 개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해 구성된다. → B

06 플라톤의 국가관 답 ③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면서, 참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바로잡기 ① 마르크스가 긍정할 내용이다. ② 맹자가 긍정할 내용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할 내용이다. ⑤ 키케로를 비롯한 공화주의 입장에서 긍정할 내용이다.

07 자유주의 답 ①

(가)에 들어갈 개념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의 행위나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개인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였다.

바로잡기 ㄷ. 자유주의에서는 시민 사회의 기본 단위를 시민으로 보며, 개인을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ㄹ. 자유주의에 따르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

08 공화주의 답 ④

제시된 내용은 공화주의의 입장이다. 공화주의는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의 상태를 넘어 누군가의 자의 및 지배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인 비지배의 자유를 중시한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비지배의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된다.

바로잡기 ①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인 지배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②, ③ 공화주의에 따르면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⑤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09 밀의 자유론 답 ②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밀은 자신의 의견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밀을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국가가 특정한 삶의 모습이나 가치를 개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밀은 어떤 의견에 오류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밀은 생각과 사상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10 공화주의의 특징과 한계 답 ⑤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속한 공화국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공화주의는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양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⑤ 공화주의는 개인선과 모순을 이루지 않고 자유주의도 공동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하다.

1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답 ②

갑은 자유주의 입장이고, 을은 공화주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중시하므로, 갑은 불간섭을 통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이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므로, 을은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바로잡기 ㄴ.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이라고 보므로, 갑은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ㄹ. 공화주의에서는 법의 지배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므로, 을은 법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2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답 ④

㉠에 들어갈 말은 '아테네'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였고, 이에 따라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회에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회가 복잡해져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바로잡기 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13 대의 민주주의 답 ①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의 도덕성이나 통치 능력이 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끼쳐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선택지 분석

-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항상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4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답 ③

㉠은 참여 민주주의, ㉡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토대로 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참여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15 소로, 롤스,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답 ②

갑은 소로, 을은 롤스, 병은 하버마스이다. 소로는 양심에 의한 판단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롤스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는 소로에게 양심에 의한 판단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A: 시민 불복종은 공적 정의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적 정의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고,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③ C, E: 시민 불복종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을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다.

④ D: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⑤ F: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소로, 롤스, 하버마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

16 근대 자유 민주주의 답 ①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 사상적 기원을 둔 민주주의가 근대에 자유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발전되었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자기 지배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로잡기 ②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사회 계약론이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③ 로크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밀은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에만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국민에게 동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17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답 ④

제시된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시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스미스는 국가의 간섭이 없다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있다고 보았다. 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의 역할이 국방과 치안 유지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8 자본주의의 기여와 한계

답 ③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소득 격차 및 부(富)의 세습에 의한 빈부 격차 확대, 가치 전도 현상 확산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③ 자본주의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결여한 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경제적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19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답 ④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 관점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과 빈부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시장 실패로 보았다.

선택지 분석

ㄱ. A: 공공 투자 확대와 완전 고용을 지향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예) 케인스는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완전 고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ㄷ. C: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억압받고 있는가? →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20 묵자의 실리주의

답 ②

㉠에 들어갈 사상가는 묵자이다. 묵자는 실리주의에 입각하여 호화로운 음악으로 재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계하였으며, 허례허식에서 벗어난 장례 문화를 지지함으로써 검소한 삶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묵자의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윤리적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21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

답 ①

갑은 마르크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하여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단계에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면서 농업, 수공업, 소매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선택지 분석

② A: 사회주의 이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B

③ B: 자본주의가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한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았다.

④ B: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체제 전복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A

⑤ B: 경제적 평등과 필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마르크스는 경제적 평등과 필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2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답 ⑤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이윤 추구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한 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갖추고, 복지 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 빈부 격차를 교정하기 위한 공정 무역을 실천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23 루소의 사회 계약론

〔주요 키워드〕 평화, 사유 재산, 불평등, 예속

채점 기준	배점
루소가 생각한 자연 상태의 모습과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는 이유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루소가 생각한 자연 상태의 모습과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는 이유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루소가 생각한 자연 상태의 모습과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는 이유를 모두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4 공화주의의 애국심

〔주요 키워드〕 비지배, 대승적, 인위적

채점 기준	배점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애국심의 특징 두 가지를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애국심의 특징 두 가지를 〈보기〉의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애국심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25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주요 키워드〕 직접, 대의, 선출, 간접

채점 기준	배점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memo

